전국의 생생한 NEWS를 한눈에
정론직필 시대정신 지방발전

전국매일신문

웰킵스
위생·건강·안전
LifeCare 전문기업

1997년 6월 24일 창간 제5944호 jeonmae.co.kr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서울 강북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동 걸었다

영등포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 등
국토부, 개발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2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시 가능
LH 등 공공기관 주도 고밀개발 추진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

정부가 서울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을 선정했다.

이곳 일대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이다.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국토부는 이곳에서 약 2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다.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으나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개선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노후도 등을 정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 대상으로 편입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66.7%)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별도의 노후도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현행 규정대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부지면적의 60%까지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되 면적은 500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에게 일반 민간개발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사업장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준인 30%포인트 추가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평택 초저온물류창고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 31일 오전 경기 평택시 오성면 (주)한국초저온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화이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 추가 물량 50만회분(25만 명분)을 지게차를 이용해 창고로 옮기고 있다. 백신은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돌입

전국 예방접종센터 46곳서 시행
49곳중 중앙·중부·호남권역센터 제외
"이달 말까지 지자체별로 1개이상 추가"

1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만 75세 대상의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31일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안팎에서 유통·관리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 75세 이상이 백신이 보관된 예방접종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종을 받도록 안내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는 성동구청 강당, 성북아트홀, 노원구민체육센터, 사랑종합체육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중랑문화체육관,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7곳에서 접종이 시행된다.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시민사랑채와 남구국민체육센터, 인천에는 선학체육관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각 2곳에 센터가 마련됐다.

광주는 염주종합체육관과 남구 다목적체육관, 울산은 동천체육관과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접종이 진행된다. 대구에는 대구동산병원, 대전에는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세종은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에 설치된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다.

경기는 고양꽃박람회전시관, 수원시 실내체육관,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이벤트홀,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등 5곳 등이다. 강원의 경우 원주시 치악체육관, 강릉아레나, 춘천시 봄내체육관, 삼척체육관 등 4곳에서 접종이 실시된다.

충북은 청주시 상당구청스포츠센터, 충주체육관, 음성실내체육관 등 3곳, 충남은 천안시 실내테니스장,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논산시 시민운동장 등 3곳에서 시행된다. 전남은 목포시 실내체육관, 여수시 흥국체육관,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등 3곳에 센터가 마련됐다.

경북은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경남은 양산부산대병원, 마산체육관, 진주종합실내체육관(초전동), 통영시 충무체육관 등 4곳, 제주는 한라체육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설치된 49개 접종센터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센터와 중부권역센터(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역센터(조선대병원) 3곳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에 대한 2차 접종과 백신 소분·배송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시행되지 않는다.

추진단 관계자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월 말까지 각 지자체 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특례시 4곳 "규모 맞는 권한이양·전담기구 필요"

수원·고양·용인·창원시장
국무총리·정무수석 만나 건의

전국 4곳의 특례시장이 도시 규모에 걸맞는 권한 이양과 함께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만 명이 넘어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요청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중앙 부처 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통과와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가지도록 관계 법령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최재성 정무수석에게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 전담 비서관 지정을 건의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오는 16일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 국무총리, 정무수석 참석을 요청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한편 내년 1월13일부터 경기 수원시(119만)·고양시(107만)·용인시(106만), 경남 창원시(104만)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된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이재명 "주택임대사업 특혜 폐지·조세부담 강화해야"

"원인 외면한 채 증상에만 집착
부동산문제 더 꼬이고 얽힐 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기 마련"이라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 복잡하고 어려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일까"라며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이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단신브리핑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추진

충남도가 어린이집·경로당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도는 31일 '2021년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55개소,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66개소 등이다. 특히 올해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과 환경성질에 민감한 영유아, 출산부가 거주하는 영아 가정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 150개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 30가구도 추가한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 이산화탄소(CO2), 라돈(Rn)으로 총 8항목이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설 소유자에게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측정을 통해 개선 검증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문의 '120콜센터' 가동

경남도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민원 콜센터'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코로나19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콜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담 공무원 1명과 전문 상담원 5명 등 6명이 예방접종 일정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과 신고 방법 안내, 민원전화 대응 업무 등을 처리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들은 익숙한 세 자리 번호 '120'으로 전화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문의는 '1번'을, 생활민원접수는 '2번'을 선택하면 된다. 콜센터에서 직접 안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민원은 '경남도 예방접종추진단'으로 연결해 처리한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참여업체 모집

충북 청주시가 오는 20일까지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15개 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국 및 일본 시장 내 비대면 소비의 확산에 따른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다각화를 돕기 위함이다.

신규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마존US와 큐텐JP 중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해 입점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체험 마케팅, 계정등록비, 배송비, 광고비 등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청주의 수출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 시스템(http://cbgms.chungbu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 kr

은수미 시장, 성남2호선 트램 市 자체재원으로 전격 추진

기재부 예타조사 불필요…9월 용역착수 등 후속절차 행정력 올인
도로교통법·트램 관련 지침 개정 시 국비 지원사업 전환도 노력

경기 성남시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전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불가피하게 철회한 2호선 트램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어렵게 결정한 만큼 후속 절차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6월 추경을 통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예산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 일부와 예산배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 트램사업에 대한 경제성(B/C) 상향방안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트램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 및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트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철도팀은 철도정책팀과 트램사업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트램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2호선 트램사업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이자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업이며,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원도심을 연결하는 1호선 트램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성남2호선 트램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성남 남부생활권, 제2,3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규탄하는 'LH 사태 자정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전 서구청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민선 7기 3차년도 역점사업을 논의했다. <대전 서구 제공>

경기도, 코로나 대응 심리지원 상담창구 운영

자유게시판 운영 통해 대응 인력 전용 소통·공감의 장 형성
자가검진·상담기관 안내 등 심리회복 온라인 공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용심리지원상담창구를 마련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의료진 등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도는 1일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한다.

지난해 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 2차 위험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응 인력의 73.6%가 '감정적 고갈'을, 71.8%가 '효능감 저하'를 각각 느낀다고 답했다. 22.1%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의료진의 심리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자유게시판, 정신건강 자가검진, 상담기관 안내, 상담 신청하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유게시판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고 답글을 남길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으로 운영, 현장에서 애쓰는 대응 인력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신건강 자가검진과 상담기관 안내 항목에서는 우울·불안 등의 증상을 자가 검진할 수 있고 31개 시군 상담 기관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직접 익명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카카오톡 채널, SNS 활성화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심리상담과 마음 건강 진료비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세종시, 청년주도 청년정책 본격화

교육·문화 전방위 지원 청년 삶의 질 제고
지역주도형 역량강화·창업 프로그램 추진

세종시가 올해 220억원을 투입해 청년주도형 청년정책을 펼친다.

시는 청년 관련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종형 청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보급,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청년마음건강사업, 세종시청년센터 확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이다.

우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게 목적으로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을 통해 인건비·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사업'으로 한국영상대·고려대·홍익대 인근에 올해 15호를 추가 공급한다.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과의 연계로 취·창업 등 진로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으로 청년이 능동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확장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설립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세종형 청년사업을 올해 5개 분야 17개로 확대·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으로 지역 청년들이 정책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목포·순천서 공공심야약국 시범 운영

전남도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공공심야약국은 동부권의 순천시 해룡면 오가네약국, 서부권의 목포시 옥암동 비타민약국이다. 공공심야약국은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365일 운영한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정까지 운영한다.

심야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주민이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지정 약국에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119와 지역 약사회 등과 연계해 안내·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판매와 상담 내용을 최대한 기록하고 자료화해 도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시범사업인 만큼 운영평가·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전남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31일 "도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경북도,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 본격화

경북도가 도민주도형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도는 31일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에이치에너지, ㈜포스코, 경북우리집RE100 협동조합, 포항공과대학교, ㈜피엠그로우와 '도민주도형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공유태양광 구축 관련 인허가 등 행정을 지원하고 (주)에이치에너지는 도민주도형 공유태양광과 그린뉴딜 플랫폼을 구축하며 포스코는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업단지를 조성, 경북우리집RE100 협동조합은 실제 공유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모델을 개발, 포항공과대학교는 전력데이터 수집·공유·공동연구를 피엠그로우는 플랫폼과 결합한 전기차충전 서비스 상품 등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향후 2030까지 경북도내 100MW, 1700억원 규모의 소규모 공유태양광을 순수 도민 자본으로 구축하고 발전수익 전액을 지역의 참여자가 나눠 가지는 구조로, 지난해 경북도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구축했던 '우리집RE100 전력플랫폼'을 활용한 성공확산 모델을 창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경창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에너지 규제 특례 발굴과 스타트업 기업 지원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연료전지 특구 지정 등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변화의 때 왔다…올해 'ESG 경영' 확산 원년 삼을 것"

文대통령, 상공의날 기념식 첫 참석
"기업·상공인들이 산업·무역 지켜내
대한상의는 유일 법정 종합경제단체
정부도 언제나 마음과 귀 활짝 열것"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경제계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도 함께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불평등·양극화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이 우선돼 왔다고 짚은 뒤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탄소중립 선언, 청년·장애인 교육사업, 산업환경 안전 등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열거했다.

나아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다. 한국판 뉴딜은 기업,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추진, 민관합동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하신 박용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한 데 이어 상의 회장단을 꾸린 기업인들을 호명하며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돼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수상자들과 기념사진 촬영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기철 인바디 대표이사, 김영석 에코플라스틱 대표이사,문 대통령, 이효근 에스디바이오센서 대표이사, 나혁휘 아이티엠반도체 대표이사. 연합뉴스/ 최재구기자

"3기 신도시 민간매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개발이익 분석
창릉·교산서만 민간분양이익 10조이상
"정부, 택지매각 통한 '로또 분양' 예고"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고양창릉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서민 주거안정정책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희기자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8000호가, 교산지구에는 631만㎡에 3만4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내 1만5200호(40%)를 민간 매각 분양한다면 민간 건설사가 9590억~2조250억 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따져봤더니 약 1조4000억~1조8000억 원이 분양에 당첨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 이익을 합치면 최대 3조80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같은 기준을 교산지구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설사가 얻을 개발이익은 6247억~1조5461억 원(수익률 최대 16.76%)으로 추정되며, 개인 수분양자들에게는 약 4조8714억~5조2102억 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분양은 최대 40%가량 된다.

분석에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분양에 비해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비율은 너무 낮다"며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박남춘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오세훈 후보 강력 비판

"10년도 더 지난 옛 논리 내세워…후보자질 의심"
매립지 종료 재강조…"막으면 단호히 뚫어낼 것"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밀어붙이겠다"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에 대해 31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SNS에서 지난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인천 등 서울 외곽에 쓰레기 매립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누구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막으려 한다면 단호히 뚫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후보는 토론회에서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침에 따라) 굉장히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후보의 질문에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가 그동안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 따라서 협의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그러면 서울이 아닌 인천·경기에 계속 (매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오 후보는 "매립량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협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10년도 더 지난 옛날 논리를 내세우고 인천시 탓을 하며 '협의해야 한다. 서울에는 매립할 곳이 없다'는 오세훈 후보의 답변은 답답함을 넘어 (시장후보로서)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한마디로 '매립량을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으니, 쓰던대로 계속 쓰겠다'란 이야기"라며 "서울 내부는 강남과 비강남으로, 수도권은 서울과 서울 주변으로 편을 나누는 구태적인 인식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 2010년이 생각난다.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오 후보가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재사용하겠다는 뜻을 비쳐 왔던 것을 저와 인천시민은 잊지 않고 있다"면서 "경인운하 사업을 위해 매립지 부지를 판 돈 중 1000억 원을 가져가고도 인천에 한 푼도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것 역시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함에도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그 당연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천과 인천시민은 고통받아 왔다"고 전제한 뒤 "그 속에 오 후보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던 것을 모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하는 게 환경정의"라며 "인천은 더 이상 서울, 그리고 수도권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 금년에 맞는 오 후보의 생각의 전환,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와 300만 시민이 내딛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발걸음, 멈추지도, 되돌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누구든 이를 막으려 한다면 단호히 뚫어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질병관리청 전국매일신문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줄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01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02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0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0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56% 박영선 32%…중도층 60% 吳 지지"

부산선 박형준 51% 김영춘 3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민주당 지지가 높았던 40대에서도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천39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 중 어느사람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0%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8%포인트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97.6%), 국민의당 지지층(83.9%), 보수층(82.9%), 60세 이상(72.4%), 강남동권(65.8%), 자영업(65.2%) 응답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88.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81.6%) 진보층(69.8%) 등에서 비교적 지지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40대는 오 후보 48.7%, 박 후보 44.2%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p) 내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오 후보 지지가 60.5%, 박 후보 지지가 25.8%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가 62.1%, 박 후보가 28.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지후보 결정시 고려요인으로는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정책 및 공약' 22.5%, '도덕성' 13.1% 순이었다.

차기 서울시장의 중점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37.9%)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26.2%), 강남북간 균형발전(1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7%, 민주당이 27.5%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잘함'이 31.6%, '잘못함'이 64.1%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엔 94.8%가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고 4.9%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일보·YTN 의뢰로 지난 28~29일 부산 거주 1천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1.1%,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32.1%의 지지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박 후보가 60.6%, 김 후보가 26.2%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날 4·7 재보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땅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몸 낮추며 지지층 결집 총력

與, 성난 민심 달래는 데 주력
吳·朴 의혹 검증 공세는 이어가
野, 지지층 끌어올리는데 주력
사전 투표 독려도 나서

여야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주일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막판 선거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31일까지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게 큰 격차 우위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이달 초 터진 LH 사태가 부글부글 끓던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그 결과 야당 우세로 급격히 재편된 여론 지형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부쩍 겸허한 자세를 취하며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다.

다만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는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조직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진 만큼, 주저하는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불러오면 역전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모처럼 찾아온 전국 단위 선거 승리 기회 앞에서 '방심은 금물'이라며 지지층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의 조직력을 떨어트려 여론조사 지지율에 근접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중도층 공략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합동 유세 등으로 야권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도 확장 전략의 하나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연구회'는 3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혁신하고 경영, 인력 운영, 재정, 추진사업 등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 책임연구를 맡은 안동대학교 윤기웅 교수는 인력은 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례를 제시하며 경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기관 유사 업무 통합을, 김진욱 의원은 경쟁력 제고를, 최병준 의원은 이윤 창출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혁신 방안을 주문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내곡동 땅 의혹' 놓고 연일 설전

與 "거짓타령 그만" 吳사퇴 압박 고삐
吳, 조목조목 반박…"처가는 초토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곡동 땅 의혹'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땅 의혹' 해명을 '거짓말 콤플렉스'로 몰아붙이며 사퇴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박영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처갓집 땅 문제의 핵심은 이해관계 충돌"이라며 "오 후보가 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오 후보가 나쁘게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니 상대방을 수사의뢰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좀 심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캠프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오 후보는 어제도 '거짓말 돌림노래'를 부르기 바빴다"며 "국장 전결처리라는 거짓 타령가를 이제 그만 좀 부르라. 뭐든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 이니, 용기 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 시절에 제 마음속에 처가 내곡동 땅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약 50분 가까이 쏟아진 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오 후보는 최초 문제 제기 당시 불완전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억 앞에서 참 겸손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측량은) 16년 전 일"이라며 "기억력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두고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저도 '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 못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묻게 된다)"며 증언자들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자신이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장인과 처남 등의 증언을 전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처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패닉 상태, 거의 초토화 상태"라며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한다. 이런 모습이 온 집안을 힘들게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후보는 해당 부지와 관련한 행정 처리가 국장의 전결 사항으로, 시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박병석 의장, 중앙亞 3국 순방차 출국…新북방 의회외교 시동

7박 9일간 대통령·의회 수장등과 회동…보건·의료 등 협력 다변화 방안 협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차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3개국 독립 30주년 및 내년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조율된 순방으로 오는 8일까지 7박 9일 일정이다.

중앙아시아 3국은 현 정부 신북방정책의 핵심 대상이다.

특히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한 주요 우방국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역시 과거 실크로드 지역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지역 신시장 개척을 위한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1992년 수교한 이래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첫 방문이며, 최고위급의 방문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대통령·의회 수장을 모두 만나 의회 차원의 신북방 외교 외연 확장을 모색한다.

첫 공식 방문지인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도착한 뒤 오는 1일부터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상원의장과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등을 면담한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이동해서는 5일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총리,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과 연쇄 회동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천혜의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갖춘 이들 국가와 농업·섬유·관광 등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도 교류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어 박 의장은 6일부터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머물며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만난다. 양국 간 의회교류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에너지, ICT 등에서도 협력 다변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특히 대규모 국책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양국 간 개발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 기간 각국 동포와 고려인 대표들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박 의장 측은 "신북방정책 핵심지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부동산 민심에 납작 엎드린 與…박원순 추가 사과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읍소 모드에 들어갔다.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성난 민심이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제히 엎드린 것이다. 정치권에선 '미워도 다시한번' 전략으로도 불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사죄드린다"며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당 광역단체장 성희롱 문제에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했다. 대처 또한 비겁했다"며 "국민들은 집값 때문에 곡소리 나는데 공직자의 집값 오르는 억소리는 외면했다"고 반성의 말을 읊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후보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부동산 폭등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세대에 사죄드린다"며 "부동산은 날로 급등하고 월급봉투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세상, LH 사건같이 '내부자들'만 성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책임을 통과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 의원의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링크했다.

애초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특검 도입 및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앞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라는 악재를 넘으려 했으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반성 모드'로 넘어갔다.

분노한 민심이 3주 가까이 가라앉을 줄 모르면서 2030 등 전통적 지지층까지 돌아설 조짐을 보인 탓이다.

민주당 전략통들은 실제 밑바닥 분위기와 여론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고 자체 조사에서는 반등세가 감지된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또 사과해야 한다"며 "더 숙여서 시민들이 확실하게 '여당이 고개 숙이는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야 정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20대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극단적으로 보면 서울·부산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보를 냈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사과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기류가 짙다는 점이 고민이다.

사과했다가 '집토끼'의 이탈까지 초래하면 선거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한복판에 굳이 박 전 시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금 다시 박 전 시장의 기억을 소환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며 "오히려 여성정책, 청년주거정책, 청년일자리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2월 산업생산 2.1%↑…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반도체 생산 7.2%↑…거리두기 완화에 숙박·음식점 생산 20.4% 반등
통계청 "전체 경기가 지난달보다 개선"…소비 0.8%↓·투자도 2.5% 줄어

2월 산업생산이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는 코로나19 사태로 늘었던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1% 증가했다.

2020년 6월(3.9%)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던 산업생산은 1월(-0.6%) 감소로 돌아선 뒤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지수로는 111.6을 기록해 통계 잡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111.5) 수준을 회복했다. 제조업 생산이 4.9% 증가하면서 광공업 생산이 4.3% 늘었다. 1월엔 1.2%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7.2%) 생산이 늘어나고 화학제품(7.9%) 생산도 호조였다. 통신·방송장비(-10.5%), 기타운송장비(-6.4%)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1% 증가해 두 달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숙박·음식점 생산이 20.4% 급등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완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고 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었다. 수출입 물량과 화물·여객 운송이 늘며 운수·창고도 4.9% 증가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0.8% 감소했다. 지난해 11월(-0.3%) 이후 3개월 만의 감소 전환이자 같은 해 7월(-6.1%) 이후 7개월 만의 최대폭 감소다.

거리두기 완화에 외식 수요는 늘고 집밥은 줄어들면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3.7%를 나타내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는 전월에 신제품 출시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월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해 1.7% 줄었다.

소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12.1%), 전문 소매점(7.4%)에서 늘었으나 음식료품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대형마트(-10.1%), 슈퍼마켓·잡화점(-6.8%)은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2.5% 감소해 지난해 10월(-5.0%) 이후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은 6.5% 늘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삼성전자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삼성 비스포크(BESPOKE) 인덕션' 신제품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디지털프라자 서울 강남 본점에서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을 소개하는 모델. <삼성전자 제공>

광양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결실

2개 기업과 투자 협약…44명 고용 창출
99억 투입 공장 증설…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 광양시는 최근 ㈜에쓰에프씨, ㈜SKD HI-TEC와 투자비 총 99억원, 4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광양시는 최근 ㈜에쓰에프씨, ㈜SKD HI-TEC와 투자비 총 99억원, 4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업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에프씨는 버려지는 조개껍데기를 자원으로 전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순환형 상생 모델을 구축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기업이다. 명당3지구 국가산단에 60억원을 투자해 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SKD HI-TEC는 옥곡면 신금공단에 위치한 기업으로 기존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상하로프스크린도어(RSD)를 자체 개발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작년 9월 불가리아와 130억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추가 생산을 위해 39억을 투자하며 공장을 증설하고 23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두 기업이 광양시를 대표하고 나아가 세계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인천항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홈 오피스 제품 증가세

2월 수입 물동량 60.9% 증가
목재·가구·전기기기류 수입 ↑

인천항이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홈 오피스 제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월 인천항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87개 수입품목 중에서 78개 품목이 증가했다. 증가량 기준으로 상위 3개 수입품목은 목재류, 가구류, 전기기기류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물동량은 11만 6084TEU이며 이 중 화물이 적재된 수입 컨테이너는 11만 4341TEU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3299TEU가 증가해 6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3대 수입품목인 목재류, 가구류, 전기기기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목재류(1만7000TEU), 가구류(1만3000TEU), 전기기기류(1만TEU)가 각각 4000TEU (28.1%), 5000TEU (73.9%), 4000TEU (98.5%)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기 3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품목 중에서 2020년의 물동량 기준으로 상위 3대 품목이었으며 전체 수입의 32.9%를 차지했다.

주요 세부 품목으로 보면 목재류에서 '파티클보드'가 6000TEU로 전년 대비 52.7% 늘어났다. 가구류에서 '의자 및 그 부분품'이 6000TEU로 56.2%, '기타 가구 및 그 부분품'이 4000TEU로 76.5%가 증가했다. 또한 전기기기류에서는 '모니터', '전기식 가열기', '케이블' 등 다양한 세부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총 87개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완구운동용구이며 2000TEU로 231.3%가 증가했다. 주로 '인형퍼즐 완구' '운동용품'에서 늘어났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컨테이너 수입에서 비중이 높은 목재류, 가구류, 전기기기류가 여전히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의자, 모니터, 완구, 운동용품 등 재택 여건과 관련된 품목의 증가세가 높았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세종시, 온라인 무역설명회로 중국 수출 발판 구축

세종시가 온라인 무역 설명회로 대중국 수출 디딤돌 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다.

시는 최근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개최한 온라인 무역설명회에 참가해 관내 기업 제품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이날 식품, 화장품, 첨단 제조업 등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갖춘 관내 강소기업인 한국소스, 새롬테크, 맥클린코스메틱 등 3곳이 설명회에 참가해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식품 제조·무역업체, 연구기관 등이 설명회에 참가해 관내 업체와 교류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도시 기업 간 교류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 방안을 구이저우성과 지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일 시 국제관계대사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유무상통의 원리에 따라 양측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상생하는 사업의 효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구이저우성과 지난 2016년 7월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 이후 문화·행정·인력 등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문경흥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경북 문경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문경흥덕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경흥덕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21㎡ 26세대, 26㎡ 86세대, 36㎡ 58세대, 44㎡ 30세대로 총 200세대로 구성됐다. 시는 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입주자 모집신청을 받는다. 입주자 모집 신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성남시, 中企 해외마케팅 전방위 지원 나섰다

7개 분야 31개사 참여…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기업별 주력상품 수출상담·통역비 등 지원

경기 성남시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올해 11억6400만원을 투입해 7개 분야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모두 312개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시의 지원을 받는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4월~11월 75개사가 참여한다. 시는 기수별 10~15개사씩 모두 6개 기수로 나눠, 세계 바이어와 기업별 주력상품을 수출상담하도록 주선하고 상담장, 통역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2기수는 참여 기업 모집이 마감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중동, 동남아, 유럽 K-뷰티 수출상담회가 진행돼 오는 6월 중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개최되는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 중국 캔톤페어,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 홍콩 미용 전시회,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참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는 32개사를, 국내전시회 참가는 64개사를, 해외규격인증 획득은 16개사를, 해외지사화·물류네트워크는 22개사를, 수출보험(보증)료는 50개사를 각각 지원한다.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진주시 공고 제2021-844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재감정)**』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감정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진주시 주약동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320m, B=15m
라. 사업기간 : 2020. 2. ~ 2021. 12.
마.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6필지/1,630㎡(붙임조서 참조)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하며 물건조서의 경우 중앙 일간신문 공고 생략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 ~ 4월 15일 ※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진주시청 도로과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 기존 감정평가업체(중앙감정, 삼일감정)를 제외하여 추천 가능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 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협의성립 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 혹은 협의를 할 수 없을 시)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 소유권이전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도로과(☎055-749-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시행자 : 진주시
사업시행자주소 : 진주시 동진로 155

일련번호	소재지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번호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	주약동	143-1	143-1	답	256	256		256*1/4	박*자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번길 *				
2-1								256*1/8	김*규	진주시 북장대로**번길 *				
2-2								256*2/8	정*복	진주시 하대로 ***, ***동 ****호				
2-4								256*1/24	이*영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번길 **, ***호	금천세무서		압류	
2-5								256*1/24	이*근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 ***동 ****호				
2-6								256*1/24	이*희	진주시 에나로 ***, ***동 ****호				
2-7								256*6425/143100	변*영	진주시 진주대로 ****, ***동 ***호				
2-8								256*6425/143100	변*혜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번길 **, ***동 ****호				
2-9								256*6425/143100	변*환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 ****동 ****호				
5	주약동	144-8	144-8	답	172	172		172	서*도	진주시 금산면중천로**, ***동 ****호				
6	주약동	140-3	140-3	답	2	2		2*5950/43970	진*현	진주시 초장로 ***, ***동 ****호				
6-1								2*3306/43970	하*근	진주시 공단로 **, ***동 ****호				
6-2								2*3307/43970	이*호	진주시 창렬로***번길 **				
6-3								2*43970/659550	김*숙	진주시 진양호로 ***, ***동 ***호				
6-4								2*43970/659550	김*호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6-5								2*43970/659550	김*호	진주시 북장대로**번길 *-*				
6-6								2*153895/659550	김*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길 **, **동 ***호				
6-7								2*43970/659550	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동 ****호				
6-10								2*1653.5/43970	이*영	거제시 상동*길 ***, ***동 ***호				
8	주약동	140-4	140-4	답	169	169		169*5950/43970	진*현	진주시 초장로 ***, ***동 ****호				
8-1								169*3306/43970	하*근	진주시 공단로 **, ***동 ****호				
8-2								169*3307/43970	이*호	진주시 창렬로***번길 **				
8-3								169*43970/659550	김*숙	진주시 진양호로 ***, ***동 ***호				
8-4								169*43970/659550	김*호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8-5								169*43970/659550	김*호	진주시 북장대로**번길 *-*				
8-6								169*153895/659550	김*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길 **, **동 ***호				
8-7								169*43970/659550	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동 ****호				
8-10								169*1653.5/43970	이*영	거제시 상동*길 ***, ***동 ***호				
9	주약동	142-4	142-10	대	473	13		13*67/473	김*근	진주시 천수로 **-*				
11	주약동	341-1	341-1	답	1,018	1,018		1,018	황*석	김해시 무계로 **, ***동 ****호				
소계						1,630								

신혼부부 임대주택 4차 공급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신혼부부 공공주택 '해피하우스'를 공급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 주택은 4곳 34세대로 신규분양되는 4차 해피하우스(삼양로123길 40-12, 10세대)와 잔여분양 세대인 1차(삼양로123길 39-1, 7세대), 2차(인수봉로72길 15-18, 9세대), 3차(삼양로 123길 40-8, 8세대)가 포함된다.

해피하우스는 전용면적 40.02~55.19㎡, 지상 5층 규모로 옥상 휴식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다. 네 곳 모두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주택 면적과 전년도 월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금은 1836~4050만원, 월 임차료는 24~52만원 사이다. 최초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9회,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여권접수 인터넷 사전예약 서비스' 시행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붐비는 민원실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여권접수 인터넷 사전예약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접수 사전예약 서비스'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한 뒤 구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예약 전용 창구에서 대기 없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강서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안내-생활민원안내-여권접수 인터넷 사전예약'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예약일, 시간, 신청 인수를 선택한 후 예약하면 된다.

생명사랑학교 확대 운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코로나 장기화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1월까지 '2021 청소년 생명사랑학교'를 운영한다.

초·중·고, 대안학교 등 40개교 학생 7870명에게 확대·실시한다. 강사진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청 등 기관에서 학생상담가로 활동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육내용은 ▲나의 고민! 너의 고민! ▲청소년 자살에 관한 OX퀴즈 ▲청소년 자살 현황과 실태 ▲자신의 고민과 해결의 어려움 ▲생명존중 관련 영상시청과 소감 나눔 ▲위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인지, 정서, 행동, 자원 활용법 훈련 등이다.

교육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하며, 수업 중 우울감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바일 웹진 '아자' 발행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종지)가 31일 '아자(아기가 자랍니다)' 모바일 웹진 발행을 시작했다.

아자는 임신, 출산, 육아, 보육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종합 소식지로 매년 봄, 가을 지면으로 1000부씩 발행, 지역 내 유관기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에 배포된다. 또 육종지 회원 등 1000여명에게 문자, 이메일로 배포가 됐다.

이번 봄호 웹진은 총 15페이지 분량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화상사고 시 조치 방법 ▲미세먼지에 도움 되는 식품 ▲사회·정서적 적응을 돕는 자기조절 능력 등을 소개했다.

육종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웹진 구독을 원하는 주민은 구 육종지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석학' 제프리 삭스 온택트 강연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달 13일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초청 온택트 강연회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가능한 새로운 평생교육 브랜드 '강남열린대학'을 개설한다.

'강남열린대학'은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온택트 방식의 평생교육 플랫폼, '관내 모든 공간이 캠퍼스가 되는 대학'이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채널이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내달 온택트 강연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양방향 좌담 형식으로 열린다. 구는 이 자리에서 구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추후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도 유튜브로 제공한다.

강남구민이 직접 연사가 되는 주민연사 강연회 '강톡'도 연4회 걸쳐 진행된다. '강남구민의 톡(대화)'을 뜻하는 '강톡'의 주인공은 강남구민이다.

송파구, 거여·마천지역 명품 주거단지 조성 본격화

실무협의TF 구성 후 4월 말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로 주민 공감대 기대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 거여·마천지역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본격화된다.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는 지난 3월 10일 관계부서 실무협의 TF(4개 분과)를 구성하였고, 세부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용역 착수보고회도 지난 25일 실시했다.

이번 용역은 ▲거여·마천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 ▲기부채납 공공부지 활용계획 ▲성내천하천·공원 생태명소화 ▲문화·관광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사업 간 연계·확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을 중점적으로 되짚을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이고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5월 중에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국회의원·시·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주변 개발여건 반영, 행정수요와 기능 예측 등 다방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폭 넓은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용역은 인접한 위례신도시와 연계한 공동생활권 형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송파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거여·마천지역이 명품 주거단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거마지역 재정비촉진사업 본격 추진과 인근 위례신도시, 하남감일지구 등 주변지역의 개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 수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적인 구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44개 사업을 구상하고 12월 '거마지역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최근 거여마천 종합발전의 첫삽으로서 마천동 603번지 일원에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을 결정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거여·마천지역 조감도. 〈송파구 제공〉

강동구, 천호동에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2023년 준공

연면적 4553㎡, 지상 6층 규모…설계공모 당선작 최종 선정 연말 착공

서울 천호동에 개방형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3년까지 들어선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설계공모를 마치고 올 연말에 착공한고 밝혔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천호·암사 중심 지역 올림픽로 741(천호동)에 들어설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공모를 통해 15개의 작품을 접수하고 지난 24일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숨비건축사사무소의 '도시로 열린 장애인 복지관'으로 저층부는 개방형으로 설계하고 커뮤니티정원, 북카페 등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개방된 저층부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옥외휴식공간을 전층에 배치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섬세함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된 점도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연면적 4553㎡,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다. 수중재활운동실, 북카페, 다목적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일시돌봄실, 강당, 공영주차장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감도. 〈강동구 제공〉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조성되면 천호·암사·성내권역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제반 영역 확장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구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이승로 구청장(가운데)이 4월 1일 접종을 앞두고 도착한 화이자 백신을 꺼내고 있다. 〈성북구 제공〉

화이자 백신 5800여 명분 성북구 도착…4월 1일 접종 총력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고령층 구민 5800여 명에 투여될 화이자 백신이 지난 30일 오후 도착했다.

접종센터는 성북구청 4층에 마련됐으며, 4월 1일 개소해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개소 첫날에는 75세 구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평일 오전 8시 30분에 접종을 시작해 일 400~600명 이상 구민 예방접종을 책임진다.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되며, 최소인원만이 머무르도록 할 방침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관악구 '창업HERE-RO3' 개관…15개 유망 창업기업 입주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테크 등 청년기업 활동…KT·KB 등 기업과 연계해 운영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창업지원시설인 '창업HERE-RO3'가 완공돼 창업기업 15개가 입주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2019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돼 기존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에서 서울대에서 임대로 사용하던 '녹두.zip' 건물(신림로 117,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52.88㎡)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 '창업HERE-RO3'를 조성했다.

창업HERE-RO3는 관악구-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거점이자 '관악S밸리' 핵심 시설 중 하나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상생 공간으로 세미나실, 공유창고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1층은 RAIP(Robot AI Program) 트랙을 설치하여 AI 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3D프린터 4대를 구비해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메이커 공간이자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

지상 2~4층은 기업 15개 독립형 입주공간과 라운지, 탕비실 등이 마련됐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테크, 스마트헬스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한편 구는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창업HERE-RO 2·3·4', '낙성벤처창업센터(3곳)', '서울창업센터 관악'을 비롯한 9개의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했다. 올해 안에 '창업HERE-RO 5' 1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창업 HERE-RO 1', '서울대 연구공원(943동)' 등을 조성해 창업지원시설을 총 13개로 확대하고 SH, LH, KT, KB 등 공공·민간 기업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시설 'HERE-RO3' 전경. 〈관악구 제공〉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금천구, 2021년 일자리 1만800개 만든다

청년일자리·코로나19 피해극복 일자리 등 6대 전략 발표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최근 '2021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1만800개로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구의 '2021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별 목표는 '청년' 30개 사업 434명, '중장년' 42개 사업 771명, '어르신' 2개 사업 2874명, '취약계층' 7개 사업 1797명, '모든 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은 19개 사업 4924명이다.

부문별로는 '직접일자리' 75개 사업 5592명,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 사업 58명, '고용서비스' 3개 사업 2498명, '창업지원' 1개 사업 90명,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10개 사업 131명, '시설건립' 1개 사업 20명, '민관기관 고용창출'이 7개 사업 2411명이다.

이와 함께 6대 추진전략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코로나19피해 극복 직접일자리 적극 창출 ▲근로자를 위한 지속적 일자리 질 개선 노력 ▲일자리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구는 2018년 공시한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을 통해 3만5900개(매년 8800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구는 2019년 목표 8900개에서 1만349개를, 2020년 목표 1만500개에서 1만814개를 창출해 일자리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올해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지만 적극적인 민관협력, 맞춤형 취업교육,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마포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하기 쉬운 주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참여자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총 24주(6개월) 동안 보건소에 2~3회 방문해 혈액검사, 혈압측정,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등을 받게 되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양·운동 등 분야별 상담 및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구가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손목형 활동량계)를 통한 참여자 보행수, 보행거리, 심박수, 소모칼로리 등 건강정보가 보건소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가, 코디네이터)에게 자동 전송돼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운동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개인별 맞춤 운동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운동량과 영양섭취 등 추가정보를 모바일 앱에 기록하면 해당 정보 역시 보건소로 전송돼 대상자에게 맞는 건강관리 목표 설정 및 상담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마포구민이거나 마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로 질환자 또는 약물복용자는 제외된다.

참여자 모집은 선착순 140명이며, 신규 참여자와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중 위험군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요인이 많은 사람은 우선 등록 대상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라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계기로 참여자들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해 구민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구로구, 중장년·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 가 중장년층과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구는 "중장년층과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마을버스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버스기사 양성 프로그램'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5월부터 8월까지 기초, 운전기능 향상, 현장연수 3단계로 실시된다.

기초과정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버스운전 자격 취득, 기초소양 교육으로 이뤄진다. 운전기능 향상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80시간 버스운전 실습으로 진행된다. 현장연수는 채용예정자가 현직자의 지도에 따라 실제 버스 노선을 운행해보는 과정이다. 교육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는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등 이론교육과 사고예방대책, 경비실무, 체포호신술 등 실무교육으로 이뤄지며,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하루 8시간,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구가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준비여성들을 위한 '여성취업교실'도 개설된다. 여성취업교실은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 과정'과 '기후환경에너지강사 양성 과정'으로 준비된다.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과정은 4~6월 3개월간, 기후환경에너지강사 양성과정은 6, 7월 2개월간 진행된다. 모집 정원은 각각 20명이며 수강료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새 출발을 준비하는 중장년, 여성 구직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은평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문화축제 등 신규사업 전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후속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복지 업무를 가족정책과로 이관하고 팀 명칭도 반려동물팀으로 바꿨다. 단순한 동물복지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구는 먼저 오는 5~12월 반려동물 돌봄 자격을 갖춘 직원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동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민들이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유대로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자칫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키우지 않는 가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주민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명사초청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인 '은평 톡톡',반려견 1:1 전문클리닉 '은평 댕댕이 스쿨', 찾아가는 반려동물 홈케어 서비스 '찾아갈 개' 등을 추진한다.

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의 동물보호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이라며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고 동물문화센터 개설 등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동작구, 30년 넘은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본격화

현 주민센터 부지에 1867㎡ 지하1~지상5층 규모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준공 30년이 경과한 사당3동 주민센터의 최근 설계공모를 마치고 본격 건립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91년 준공된 사당3동 주민센터(사당로17길 86)는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오래전부터 새로운 청사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구는 2019년부터 신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계공모를 마쳤으며, 올해 말 실시설계를 끝내면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말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사당3동 주민센터는 현 청사부지에 건립되며 연면적 1867㎡(지하1~지상5층) 규모로 현재의 주민센터와 비교해 1000㎡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친화적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지하주차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대강당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건립 구상단계부터 '주민희망시설 설문조사'를 2차례 실시하고,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자문단'에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등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사당3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 공모에 당선된 청사 조감도. 〈동작구 제공〉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02-820-91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성동구, 만75세 이상 백신접종 동의율 83% 넘었다

오늘부터 4대권역 5대 전용 셔틀 운행…백신 긍정적 기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0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신청을 받은 결과 83.51% 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 만 75세 어르신 1만 9170명 가운데 1만 6009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당초 70%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어르신들이 백신을 긍정적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각 동별 통장이 어르신 세대를 직접 방문해 백신접종 동의서와 안내문, 예진표를 전달한 후 동의를 받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를 병행했다.

구는 1일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을 위해 5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4권역으로 나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시간대에 맞게 동별 지정장소와 구청 백신접종센터를 운행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을 위해 방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구청사 외벽 물청소와 보도와 구청사 지하주차장 도색 정비 등 외부 환경정비와 함께 지정 장소에서 직원이 직접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하며 구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성동구청 백신접종센터는 서울시 전 자치구 백신접종센터의 표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센터의 접종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 운영 모델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랜 시간 백신 접종을 기다렸을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백신예방접종센터 준비를 마쳤다"며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꼼꼼히 살펴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성동구청 '서울시 1호 백신예방접종센터'가 대기번호 1번을 기다리고 있다. 〈성동구 제공〉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광진구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취소 결정

김섭갑 광진구청장 "행사 최소화·방역수칙 준수" 요청 관련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우려해 김선갑 구청장이 직접 광진구기독교연합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동서울지역 제8성동·광진지구에 행사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2주동안 특별방역 주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진구기독교연합회는 구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근 자체 회의를 통해 부활절 연합예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오는 4일 한국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진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취소됐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는 "광진구에서 지속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적극 지원해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며 "종교계 지도자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동서울지역 제8성동·광진지구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는 가족간 감염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역학조사 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역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시, 무조건 자가격리 시설로 입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병·의원, 약국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감기 등 증상으로 병·의원, 약국을 찾는 경우 코로나 사전 검사를 권유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 게시문을 부착하고,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학교·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자 방역수칙 체크리스트 의무화를 시행한다.

아차산 등산로, 중랑천 뚝방 등 봄철 밀집우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봄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음식업,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수시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었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광진구는 특별방역대책주간을 정해 기존 매뉴얼보다 강화된 점검 및 방역활동을 펼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박성수 송파구청장 '한예종 송파구 유치기원 릴레이' 동참

한예종 범구민 유치 추진위 '한예종 송파구 유치기원 릴레이 캠페인' 전개
구민 대상 한예종 송파구 유치희망 메시지 SNS 이벤트 동시 진행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한예종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의 '한예종 송파구 유치기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예종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는 캠페인을 통해 송파구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한예종의 송파구 유치 응원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전 구민의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예종 범구민 유치추진위 강태순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시작으로, 박성수 송파구청장, 남인순 국회의원, 김웅 국회의원, 이황수 송파구의회 의장, 노승재 시의원, 이근식 前 장관,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범헌 (사)한국예총 회장, 신영희 이사(국악인) 등 많은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예종 송파구 유치희망 메시지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역사, 문화, 예술, 체육 등 다방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데다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들이 원하는 6개원 통합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의 유일한 부지"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한예종이 송파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67만 송파구민의 역량과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예종 유치기원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 제공〉

한편, 구는 이전을 준비 중인 한예종 유치를 위해 방이동 445-11번지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정하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관내 문화체육기관인 한국체육대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체육예술 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7일 공포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 재정건설위원장인 김덕현 의원(사진)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구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으며오는 7일 공포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안전점검과 홍보 활동을 펼치며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에 제시한다.

또한 서대문구가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들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안전보안관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으며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 밖에도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구의 활동 지원 및 관리와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구의회의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강북구,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추경 61억 긴급편성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에 맞춤형 선별지원금 투입
최대한 지급시기 당겨…조례개정 등 법률근거 마련에 속도 내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 '위기극복 재난 지원금'에 필요한 구비 분담액이다. 일반회계 61억이 증액된 규모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 위기극복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가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등에 지급되는 맞춤형 선별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에는 마을버스 업체와 종사자, 문화·예술인, 긴급 돌봄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어린이집·아동센터 등도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등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 등 법률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추경편성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대한 예산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강서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재무제표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김병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가운데 오수홍 공인회계사, 소병천 공인회계사, 김선미 세무사, 박상동 전직 공무원 등 재정 및 회계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위촉됐다.

강서구의회 김병진 대표위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집행부의 재정집행이 적정·적법하게 됐는지,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 재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건전성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지표가 된다. 아울러 집행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280회 정례회에서 최종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김윤미 기자 kym@jeonmae.co.kr

성북구의회, 추경 80억 통과…제281회 임시회 폐회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는 지난 30일 8일간 진행된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총 11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결 전 의원간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가 7969억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인 7889억원에 비해 1.01%인 80억이 증액됐고, 총 예산안은 8071억원에서 815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재해·재난대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동북권 패션 · 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9건이 원안가결됐고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김일영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안건들이 코로나19에 지친 구민 여러분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과 함께 구민 건강을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제282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한국새농민중앙회, 중구에 농산물 꾸러미 500박스 기부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농협중앙회 본관 마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새농민중앙회에서 후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500박스(5000만원 상당)를 전달받았다.

(사)한국새농민중앙회는 새농민의 자주적 협동체로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발전에 이바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 꾸러미는 쌀, 보리, 감자, 토마토 등 8가지 농산물로 구성되며 구는 전달받은 후원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운 관내 저소득 주민 50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서양호 구청장, 이개호 농림해양수산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 김안석 새농민중앙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안석 회장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안석 새농민중앙회장, 서양호 중구청장. 〈중구 제공〉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내 저소득 가정에 꾸러미를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동대문구, 지난 해 이어 봄꽃축제 취소…비대면 볼거리 마련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매년 4월 중 개최하던 봄꽃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하기로 했다.

봄꽃축제가 열리던 장안벚꽃길은 군자교~연육교 3.4km, 중랑천변을 따라 벚꽃과 산수유, 개나리, 황매화, 철쭉 등이 활짝 피는 곳으로, 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구의 대표적인 봄꽃 명소다. 구는 축제 대신 구민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꽃그늘 아래서 가벼운 산책을 소소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랑천 장안벚꽃길(군자교~겸재교 구간)에 거리를 두고 꽃·나비별·모형 포토존, 그림자 포토존을 설치했다.

또한 장평교~장안교 약 900m 구간에 조성된 야외 갤러리에는 '봄이 오는 소식'이라는 주제로 관내 사진동호회의 작품을 전시하고, 구간마다 청사초롱길, LED조명 등을 설치해 해가 저문 뒤부터 밤 11시까지는 달빛 아래 다양한 색의 빛과 어우러진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설물 관람 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하며 벚꽃길 위에서 취식행위는 금지된다.

구는 구민들이 아름다운 봄꽃의 정취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영상에 담아 구청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아동보호팀 신설 운영

인천 계양구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른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으로 총 5명을 배치했으며, 아동학대조사와 보호조치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 아동의 안전과 긴급 상황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아동학대 여부 판단, 피해 아동보호 계획 수립, 원가정 보호 혹은 위탁·대리 보호 결정 등을 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성공적으로 안착 될 때까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동보호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인천 연수구는 최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연수대명아파트 등 56개 공동주택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금은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업 시행 후 공사 준공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는 사업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사업에는 119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신청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비 의무관리 대상단지·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2개 단지의 옥상 방수·건물 보수 등에 2억4500만 원, 의무관리 대상단지 공동주택 24개 단지의 급수배관·승강기 교체 등에 5억3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인천 미추홀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3300여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2곳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납부해야하며, 한곳 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 시행

인천 동구는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 및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9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구 관내 설치된 도로명판 1709개 건물번호판 9216개, 기초번호판 64, 지역안내판 10개소 총 1만9999개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단말기를 활용해 안내시설의 망실 및 훼손 여부, 시인성 확보 여부, 설치 위치의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멸실·훼손된 시설물은 오는 9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신속·정확한 정비로 구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모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를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원서, 개인 SNS 활동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 및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거쳐 제1기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제1기 서포터즈는 4~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공항 공식 행사 참석 및 인천공항 관련 취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활동 기간에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추가 포상할 예정이다. 또한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airportp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어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 중구, 일석삼조 효과 노린다

민원해결·편의증진·전통시장 활성화
국·시비 포함 총 사업비 262억 투입
2023년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도 실시

인천 중구에는 3대 전통시장인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인천종합어시장이 있다.

신포국제시장은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 상권이 사는 듯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2개의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장의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홍인성(사진) 구청장은 "먼저 전통시장 상권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결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사업비 262억 원을 확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어시장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민원 해결과 함께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은 2000만 원까지, 시설개선자금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융자지원의 규모를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의 3%를 구에서 보전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e음카드결제 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수수료 0.5%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구는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지원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 구청장은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의회가 최근 2020회계연도 예산의 적정 집행을 살피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2020회계연도 예산 적정 집행 세심하게 살핀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가져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장 접견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민경서·이병래·서정호 의원을 비롯 세무사 5명, 재무전문가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기금 등 모두 19조5152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사하고 검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위촉장을 수여한 신은호 의장은 "결산검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하나금융 본사 조성 공사 8월 착공

이재현 구청장, 함영주 부회장 만나
본사이전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확정
구 의견 반영 등 세부적 의견도 나눠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그룹 본사를 조성하는 공사가 빠르면 올해 8월 시작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월 첫 입주를 예고한 본사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 3000여 명이 이곳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본사 조성 공사는 하나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와 시설들을 청라에 집적화하는 하나드림타운 사업 3단계로 추진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서 1단계 사업으로 통합데이터센터를, 2단계로 금융 인재 양성 기관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청라에 구축했다.

최근 이재현 구청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자 현 하나드림타운 추진위원장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에서 만나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과 관련해 빠르면 8월 시공을 포함,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 짓고 세부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이 완료돼 3단계에 걸친 하나드림타운이 완성되면 최소 6000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연수 및 이동인구를 포함한 연인원 1만5000여 명이 서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구의 고용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세수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함 부회장은 "현재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서구가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빠르면 8월 시공을 목표로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하나금융의 서구 시대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일자리 제공 등에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서구 역시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금융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부평구 "올해 일자리 1만여개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연계 2021년 세부계획 수립
부평산단 활성화·도시재생·공공형 일자리 등 진행

인천 부평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만66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자리 창출은 부평산업단지 활성화, 도시재생 및 창업지원, 인력양성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공공형 일자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과 연계해 '2021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부평 제조업 성장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청년과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 확대,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선정했다.

구는 먼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8곳과 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일자리 인프라를 확대해 고용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시장 육성, 공동배송센터 운영, 환경개선 등으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노인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10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청년창업 재정지원과 지난해 문을 연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으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해 침체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역산업 특성에 맞춘 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및 경제위기에 직면한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시, 노인지원정책 확대 시행 〈Ⅳ〉

어르신 급식단가 4천원으로 상향 지원

결식우려 5673명 대체식 지속 지원
취약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결식우려 어르신 5673명에게 대체식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기존 급식단가를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했으며, 전년 대비 81명의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는 등 계속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100명이상 이용하는 무료급식지원 시설에 영양사 또는 조리사 인력 14명을 지원, 무료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박남춘 시장은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투입,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0명에게 마스크 및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증의 확산 및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참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인을 발굴해 무더운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기를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안전지원 등의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민우 복지국장은 "인천형 지역특화 노인돌봄서비스로 돌봄대상 어르신 1만3528명 중 상시 안부확인 대상자 8600명에게 쌍방향 영상통화와 온도·습도·동작감지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심안부서비스 기기(안심폰)를 지원, 체계적이고 꼼꼼한 실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장정민 옹진군수 "섬 접근성 개선·공공의료 질 향상을"

국회 섬 발전연구회 토론회서 건의

인천 옹진군은 장정민 군수가 최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섬 발전연구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섬 지역 접근성 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건의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과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았다.

장 군수를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5명은 각각 집무실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군수는 "섬은 연륙된 섬과 연륙되지 않은 섬을 구별해 이에 맞는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형여객선 출항 등 섬 지역 접근성 개선과 섬 지역 보건의료 인력 충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박 연구위원은 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취약한 해상교통 환경 등 열악한 접근성과 낮은 인프라 수준을 들었다.

이에 대한 삶의 질 제고 방안으로 섬 지역 장기적인 사회·경제 변화 추적, 어촌형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첫 주민파트너 본격 활동

인천시, 주민파트너 명패 전달
주민 동참·공감 유도 역할 맡아

인천시는 최근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의 첫 주민파트너로 선정된 4가구에 주민파트너 명패를 전달·부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재생사업 추진 및 적극 참여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도시재생아카이빙·파트너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그 일환으로 첫 주민파트너를 선정했다.

프로젝트는 오는 2024년까지 시와 LH가 모두 2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 동인천역이 다시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인·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를 위해 2월 초부터 작년 진행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한 주민 가운데 주민협의체에 가입하고 주요 프로그램(주민간담회 및 설명회·자율정비의 향조사·신탁리비·도시재생대학) 4개 중 3개 이상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파트너 후보군을 압축하고 사전인터뷰, 참여요청 절차를 거쳐 최종 4가구를 선정했다.

주민파트너 명패를 받은 가구는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동참과 공감을 유도하는 주민활동가로써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4월쯤 현재 진행 중인 단위사업의 참여자, 재생사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주민파트너를 공개 모집, 파트너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은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여러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해 낙후한 동인천역세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의 촉매제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근원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인천교육청은 최근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된 신규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올해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iH공사, 가스폭발 화재사고 피해주민 긴급 주거지원

인근 임대아파트 무상으로 임시 사용

iH공사가 최근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i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아니지만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선다.

iH는 급작스런 화재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거곤란 세대에 임대아파트 공가 4세대를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지원으로 피해주민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연수시영아파트 내 즉시 거주 가능한 공가세대에 31일부터 임대료 무상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승우 사장은 "지난해 재해로 인한 긴급 취약계층 발생 시 복구기간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공가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 지역사회 내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내달 31일까지

경기 고양시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대상자는 지난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직전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농업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확인·작성 후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불법찬조금 예방계획 시행

경기교육청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예방계획에는 지난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다.

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 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상시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소책자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옛사진 수집 내달 31일까지 접수

경기 용인시가 '옛사진 수집'을 진행한다.

시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옛사진 수집은 지난 2000년 이전에 관내에서 촬영된 용인의 역사와 정취가 담긴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용인 곳곳의 풍경, 골목, 건축물, 행사, 인물 등 시민의 생활상과 용인의 발전상이 담긴 사진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수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흔들림이나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제외다. 제출한 사진은 디지털 작업 후 기증자에게 파일로 제공하고 심사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작의 경우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시청 로비 등에서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 9일까지 접수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주민등록상 당진시 거주자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주로 등록된 청년 농어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단 관내 미거주자, 경영주 외 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및 문화누리사업, 공무원(공공기관) 복지카드 지원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본인이 선택한 카드발급 희망지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학원과 영화관, 수영장 등에서 올해 안으로 사용하면 된다.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정선풍경 전국 미술대전 작품 공모

강원 정선문화원이 '자연을 담은 정선의 정취'를 부제로 제8회 정선풍경 전국 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 부문은 한국화 및 서양화 등 2개 부문으로 정선풍경을 주제(배경)로 한 국내·외 미발표 작품 및 타인의 작품이나 모방 작품이 아닌 작품으로 국적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 이하는 출품할 수 없다.

출품은 무료이며 작품규격은 50호 이내 30호 이상의 평면(한국화, 서양화)으로 작품 접수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진파일을 이메일(정선문화원 js@jscc.or.kr)로 접수하고 2차 접수는 1차에서 선정된 작품(입선 이상)을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및 택배로 정선터미널문화공간으로로 접수하면 된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산림토목사업 조기 발주 493억 투입

동부지방산림청은 예산 493억원이 투입되는 산림토목사업을 조기 발주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9㏊, 사방댐 준설 11개소 등 생활권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에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 관리시설인 국유임도는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91.6㎞ 신설하고 기존임도의 효율적인 기능을 고려한 노폭확장 및 구조개량 41.5㎞ 등에 30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장마·태풍 집중호우 피해지에 대해서는 125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 말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릉/ 이종빈기자 ejb@jeonmae.co.kr

정선군, 미래형 선별진료소 만든다

정선군보건소 주변에 7억 투입 7월 준공 예정
음압 중앙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모니터링 가능

강원 정선군이 미래형 선별진료소를 정선군보건소 주변에 신축한다.

현재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는 정선군보건소 주차장 시설을 임시로 개조해 운영해왔으나 올해 7억 원을 투입해 비대면 접수실, 검체채취실, 엑스선실, 착의실, 탈의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96㎡ 규모의 선별진료소를 신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건물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이 선별진료소는 전 시설 음압 중앙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양·음압 공기정화장치, 냉난방 시설 완비로 실시간 음압 및 공기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접수실, 역학조사실, 검체 채취실은 전자동 소독 장치를 설치해 감염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의료진은 그동안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더위와 추위속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신축되는 선별진료소에서는 레벨 D 보호복을 입지 않아도 되며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 또한 의료진과 비대면으로 1인 1실 음압 시설 및 자동 소독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하게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과 민원인과의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군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며 평상시에는 결핵, 홍역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전용 진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승준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군민과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강원 정선군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조감도. <정선군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LH사태 자정 결의 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1일 대전 서구청에서 개최된 '민선7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LH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군포시, 어르신 일자리사업 빛났다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공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

경기 군포시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군포 노인행복센터의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비스만족대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 참여 시장형 일자리 사업장 운영을 통해 매년 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47억원 규모로 어르신 일자리 전용센터인 '군포 노인행복센터'를 건립하고 2019년부터 브런치카페와 재봉사업단, 공동작업장, 바리스타 교육장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9년 1533명을 시작으로 2020년 1681명, 올 들어 2월 말 현재 1711명의 어르신들이 5개 사업장에서 각자의 특기를 살려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참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가 이유는 생활비 52.9%, 용돈 마련 19.7% 등 경제적 요인이 많았으며, 참가 효과로 가정경제 도움 43.7%, 건강 개선 26.7% 등,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도로변 풀 뽑기 같은 단순노동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유형별로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의정부시, 지역화폐 소상공인 필수 아이템 역할 톡톡

하반기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 도입
시민 편의 증진·지역화폐 활성화 기여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사랑카드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두 차례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로 의정부사랑카드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필수가 됐으며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은 서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의정부사랑카드는 지난 2019년 60억 원에서 2020년 437억 원으로 628% 증가했고 지난 2월까지 117억 원으로 올해 발행목표액 495억 원의 24%를 달성했다. 또 재난지원금, 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금 또한 2월까지 40억 원을 발행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용금액 또한 지난 2019년엔 충전금액의 78%를 사용했고 지난해와 올해 93%를 사용해 지역화폐가 소득을 소비로 이어주는 소비심리를 개선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결제방식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기존 카드방식 외에 추가로 모바일 결제방식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올해 도입될 예정으로 배달수수료를 모바일 지역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면 소규모의 자체예산으로도 시민의 소득 증가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금산군, 운수사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총 150억 규모

충남 금산군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접수를 실시한 데 이어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에도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15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대출 원금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연 2% 금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의 시장·군수 또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자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운수사업자다.

신청은 3월 말 기준 금산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양평군, 제11회 용문산 산나물 축제 온라인 개최

경기 양평군은 2021년 제11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은 오프라인으로 용문산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되며 프로그램은 개막식 프로그램,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유튜브 버스킹 공연 등이 철저한 방역조치 지켜 진행된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유튜브, 포털사이트 쇼핑프로그램과 연계해 이뤄지며 산나물, 농·특산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사전예약판매, 어린이 산나물 퀴즈대회, 산나물 온라인 요리교실, 온라인 이벤트 경매, 유튜버와 함께하는 브이로그 in 양평, 축제 사전홍보를 위한 UCC공모전, 사랑의 용문산 산나물 배달부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 추진

경기 화성시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을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 및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방역지침을 준수한 결과 도내에서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140억 원을 시비로 충당,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7개 분야를 선별, 핀셋 지원을 통해 4~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관내에 등록된 2만여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우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4100여 개소에 각 100만 원씩, 식당, 카페, 독서실, 숙박업 등 영업제한 업종 1만4000여 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한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sp@jeonmae.co.kr

경기 광주시, 쌈 문화 캠페인 온라인 선포

매달 31일 쌈(3)으로 하나(1)되는 날

경기 광주시가 매달 31일을 쌈(3)으로 하나(1)되는 날로 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쌈 먹거리 문화를 전파할 계획이다.

31일 시는 쌈 문화 캠페인 온라인 선포식을 통해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알리고 쌈 관련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쌈 문화 캠페인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중심으로 쌈 싸 먹기 동영상과 쌈의 효능과 유래, 다양한 쌈채류 소개, 쌈과 어울리는 음식 등을 온라인에 홍보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쌈은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통 먹거리"라며 "코로나 시대를 겪는 전 세계인들과 우리국민들에게 건강과 맛이 담긴 쌈 먹거리 문화를 적극 알리는 쌈 문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쌈은 채소와 고기, 전통장, 밥 등의 먹거리가 어우러진 건강식이자 화합과 조화의 문화를 담고 있다"며 "쌈 문화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쌈 먹거리들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자연채'라는 채소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며 "전체 농가의 66.8%(416호)가 153만㎡에서 채소 농사를 짓고 있어 대한민국 쌈 문화의 본거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 운영

30일까지…위택스 통해 전자신고

충남 보령시는 지난해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 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은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특히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안분신고 미신고시에도 20%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강원 춘천 청평사. <춘천시 제공>

춘천 청평사 캠핑장·출렁다리 '새 단장'

선착장~청평사 통행길 보수 경관개선·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강원 춘천의 대표 관광지 청평사가 변신한다.

시는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과 출렁다리를 이달 준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캠핑장과 출렁다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춘천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늑한 여가 공간과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억원이 투입된 청평사 출렁다리는 길이 43미터, 폭1.5미터이며 현재 철거된 부용교 자리에 신설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95%다.

또 사업비 15억원을 들인 청평사 국민여가캠핑장도 문을 연다.

이 캠핑장은 일반사이트 12면, 자동차사이트 7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료는 7~8월 성수기 주말 기준 일반은 3만5000원, 자동차사이트는 4만원이다. 일반 캠핑은 물론 요즘 유행하는 차박까지 즐길 수 있어 많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청평사 관광지 선착장 보도구간 포장 공사를 통해 관광지 내 경관을 개선하고 유람선 이용객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철호 관광과장은 "출렁다리와 캠핑장을 통해 청평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폭넓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착공

전북 남원시는 31일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4700만 원을 투입, 구 향교동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연면적 1,090㎡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해 단체별 사무실, 교육장 및 다목적 강당 등을 조성한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동절기로 인해 중지했던 공사를 재개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한곳에 어우러진 종합회관 건립으로 단체 간 협업기능이 향상되고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관광홍보 UCC 공모전 개최

전남 진도군이 주요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문화예술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관광홍보 영상콘텐츠를 제작·활용하기 위한 2021 진도 관광홍보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이며 접수는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별로 제작한 2분~3분 내외의 영상물을 신청서류와 함께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총 9건을 선정, 최우수상 1인(팀) 300만원, 우수상 2인(팀) 각 100만원, 장려상 6인(팀)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2021년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경북 영주시는 이달부터 '2021년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한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0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 회에 선착순 10가구 내외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매월 초 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638-5433)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일 진행하는 '2021년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148아트스퀘어에서 우리 가족 지키는 마스크걸이를 만드는 마크라메실놀이로 전 가족 참여 우선으로 8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주/ 엄창호기자 changho@jeonmae.co.kr

스마트폰 활용 비대면 치매예방교실 운영

경남 의령군은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온 기존 프로그램을 네이버 밴드 플랫폼을 활용해 상·하반기에 '비대면' 방식으로 각각 운영된다.

상반기 예방교실은 1일부터 내달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우선 모집한다.

교육진행은 우편을 통해 교재 등 준비물을 배부한 뒤 매주 1회 치매예방 인지훈련 과제를 밴드에 업로드 하면 참여자간 과제를 수행하고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에게 피드백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또한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주관적기억감퇴평가를 비롯한 단축형노인우울척도, 치매선별검사 등을 받게 되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만족도 평가를 한 후 교육 전후 변화 등을 체크할 계획이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농산물 간이공판장 개장·운영

경남 산청군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간이공판장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규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소량의 농산물이라도 회관이나 해당지역 농협에 가져다 놓으면 농협 직원들이 직접 수거, 공판장에 출하하는 등 고령농가 맞춤형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군농협은 오는 11월 말까지 신안면 소재 옛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 간이공판장을 개장·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주요 출하품목은 취나물, 두릅, 깻잎, 감자, 고사리 등이다. 최근에는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음나무순, 냉이, 산마늘(명이), 가죽 등 산나물류도 출하되고 있다.

이밖에 건고추, 양파, 블루베리, 상추, 버섯 등 각 시기별로 83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하되고 있다.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성제봉 신선대 구름다리 이달말 준공

경남 하동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지리산 성제봉(형제봉) 신선대 구름다리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2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3월부터 성제봉 신선대 일원에 설치된 기존 출렁다리를 철거하고 다리 기둥이 없는 무주탑 현수교 형식의 연장 137m, 폭 1.6m의 구름다리 신설사업에 착수해 이달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주 윤상기 군수와 박성곤 군의회 의장이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현장 점검과 더불어 탐방객의 안전한 구름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시했다.

윤 군수는 "성제봉 신선대 구름다리가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하동군, 인니와 100만달러 계약

두번째 온라인 수출상담회서 성과…관내 9개 업체 참여
"농·특산물 우수성 알리고 수출기회 선점 좋은 기회 될 것"

경남 하동군은 올해 두번째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100만달러어치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열린 수출상담회는 관내 9개 업체와 인도네시아 바이어 5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총 12회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승희 경남사무소장의 협조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바이어 관심품목을 매칭하고 바이어에게 사전 샘플을 발송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상담활동이 이뤄지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이날 상담회에서는 관내 누림트레이딩이 인도네시아 두나 히자우(DUNA HIJAU)와 하동 농특산물 100만 달러어치의 계약을 체결했다.

윤상기 군수는 "현 정부에서는 전 분야에 거쳐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번 수출상담회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남방 국가들에 하동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기회를 선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첫 수출상담회에서는 자연향기가 Khee Trading과 가공김 100만 달러어치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최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진주 상평산단 재생사업 7년 만에 착공

공단로 병목구간 우선 시행
2025년 까지 466억 투입

경남 진주시는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466억 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시행 구간은 지난 2013년 혁신도시와 연계해 김시민대교~상평공단~진주원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김시민대교~구)삼삼주유소의 1,362m 구간 중 1,140m는 혁신도시 서측 진출입로 확장공사로 8차로로 확장됐으나 나머지 222m 구간은 도로확장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출·퇴근 또는 도로변 하역작업 시 정체가 가중돼 공단 물류 수송의 큰 저해 요인이 돼 왔다.

시는 도로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단 진출입 지점의 수송이 원활하게 되고 혁신도시간 이동이 크게 개선돼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기반시설 착공으로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된다"며 "향후 복합용지 공모사업, 활성화구역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돼 도심 내 낙후지역에서 성장거점지역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나주시, 市승격 40주년 전시회 개최…시정 기록물 수집

행정 관련 모든 기록물 대상 내달 31일까지

전남 나주시가 올해 '시(市) 승격 40주년' 기념 '시정기록물 전시회' 개최를 위해 기록물 수집에 나선다.

시는 7월 중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시 행정과 관련된 기록물을 내달 31일까지 수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시 승격 및 정책·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과거사건, 이슈에 대한 사진·문서', '각종 상장과 상패·표창·기념품', '시장·군수 관련 기록물', '옛 사진·업무수첩·월급봉투·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행정사무용품' 등 나주시 행정의 변천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다.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나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기록물을 첨부해 시청 총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민간 기록물 수집과 더불어 전라남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상급기관에 보존 중인 시정 기록물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집된 기록물은 전시회 종료 이후 나주시 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강인규 시장은 "이번 전시회는 1981년 시 승격 이후 우리 시가 걸어왔던 지난 40년의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981년 7월 1일 금성시(현 나주시) 시승격을 축하하는 홍보탑과 현수막이 나주시가지(옛 영산포 역 주변)에 설치돼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함안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일자리 4800개·고용률 67.5% 달성 목표

경남 함안군이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일자리 4800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화합과 상생의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지역특화·신산업, 함안 미래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력 일자리, 농업·관광산업 新일자리 창출 등 5개 핵심 전략과 75개 세부 실천과제를 통해 '더 좋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특화·신산업 유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유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고흥군, 여성 원데이 클래스 9개 과정 개강

전남 고흥군은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운전면허, 아로마테라피 등 9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호하는 과정으로 수강생을 모집·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한 나를 가꾸는 원데이 클래스 과정으로 꽃꽂이, 마카롱만들기 등이 젊은 여성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도 꽃꽂이를 포함한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경력단절 농어촌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자립능력 기반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여성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커피바리스타 등 75개과정 13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인구정책 시민 홍보 서포터즈 위촉

전남 순천시는 '인구정책 시민 홍보 서포터즈' 14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한 시민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 분야는 영유아·여성,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정주여건 5개 분야로, 매월 3편 이내의 게시글을 SNS에 올려 시민들에게 순천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보 전달과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석 시장은 "도심 구석구석 작은 정원 조성 등 시민들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며 "시정을 바꿔나가는 것은 이러한 시민들의 작은 참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순천시 인구정책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의령군 궁류면 '복지 이불 빨래방' 시범 운영

의견수렴 통해 12일부터 본격 시행

경남 의령군 궁류면은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궁류 복지 이불 빨래방'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기 신청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하기 힘든 대형 세탁물 등 세탁을 하기 힘든 빨래에 대해 대행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가사부담 감소,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수거·배달 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안부 확인으로 지역 내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효과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살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현하여 면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전남도,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 41억 지원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전남도는 녹비종자,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로 올해 41억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비 31억 500만 원 중 16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비로 국비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한 농가다. 유기인증 농가는 ha당 200만 원, 무농약은 150만 원까지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녹비종자는 신청한 전량 지원된다.

이정희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유기농업 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농기자재는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함양군, 상하수도 월동대책 빛났다

사전점검·홍보 등 선제적 예방활동

경남 함양군은 지난 겨울 수도계량기, 급수관 등 지방상수도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군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계량기 사전점검, 동파예방 홍보 등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난 겨울 함양군 지방상수도 계량기 9,100전 중 단 33건만이 동파됐다.

이중 20건이 빈집이었고, 급수관이 동결된 곳은 23건으로 이는 군내에서도 비교적 추운 북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군은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견되면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로 즉시 교체하고 급수관 결빙으로 여러 가구가 불편을 겪을 경우에는 긴급지원반을 투입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및 지방상수도 급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도계량기 보온, 수돗물 약하게 틀어놓기 등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뿐이다"면서 군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함양/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울진군 '울진사랑카드' 발행액 101억 돌파

올해 200억 규모 대폭 상향

경북 울진군은 '울진사랑카드' 발행 3개월 만에 일반발행 54억원과 정책발행 47억원을 포함한 총 101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올해 울진사랑카드 발행액을 200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비심리가 위축된 군민들의 활발한 소비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10%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울진사랑카드는 만14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결제액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과 충전은 모바일앱 그리고 지역화폐 또는 관내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금융기관 26개소를 통해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사랑카드 발행규모 확대와 연말까지 캐시백 10% 지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울진사랑카드를 더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 장성중기자 csc988@jeonmae.co.kr

구례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대상지 45개 확정

3년간 5억4천만원 지원

전남 구례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대상 마을을 최종 확정,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도가 주최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범도민 출범식'에 31일 참석, 최종 45개 사업대상 마을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널리 알리고 으뜸마을로 선정된 1000개 마을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됐다.

선정된 으뜸마을은 매년 4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을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궤를 같이하는 '블루이코노미'를 지속 발전하기 위해 전남 천혜의 청정자원을 잘 관리하고 보전, 군민 스스로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청정자원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범도민 운동이다.

선정마을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마을에 방치된 공터, 도로변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노후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꿔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전남도에서 가장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원이 많은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청정 구례를 만들겠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구례/ 양관식기자 yang-ka@jeonmae.co.kr

경산에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150개 병상 규모

맞춤형 재활의료 서비스 기대

경북 경산시는 최근 경북권역 공공재활의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경북권역재활병원의 개원식을 가졌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건립된 이 병원은 연면적 14,677㎡, 지상 4층, 150개 병상의 규모다. 총 사업비는 의료장비 구축을 위해 지원된 복권기금 35억원을 포함해 총 486억원이 투입됐다.

병원은 로봇보행훈련실, 소아물리치료실, 일상생활훈련실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할 27개의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동식 환자 리프트, 수중트레드밀, 멀티 아쿠아짐 등 다양한 수중재활 장비를 구비한 수치료실은 630㎡으로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검진실에는 CT, C-ARM, 등속성근관절검사기, 동작분석시스템 등 최첨단 검진장비가 도입됐으며 3층~4층은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성된 150개의 병상을 갖췄다.

병원은 재활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재활운영단'도 구성했다.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공공재활운영단은 내원 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의정부시, 도시공원 싹 바꾼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등 추진
시민 눈높이 맞는 공원 기능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 속 흉칙한 공원 환경을 적극 개선해 도시의 가치와 기능을 향상하는 녹색문화사업이며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과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오는 12월 완료된다.

특히 의정부동에 위치한 만남문화공원이 대상지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으며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신곡동에 위치한 청룡어린이공원이 대상으로 어린이가 없는 우범화된 공원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대상지들 모두 도심 속 소중한 공공시설로서 삭막한 도심 내 녹색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조금이나마 집 앞 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원 녹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원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해창 시 공원과장은 "현재 시에는 도시공원이 108개소가 있으며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배려 받는 공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삼척시 지역상생협의체 제공>

삼척지역상생협의체·삼척시민,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촉구 강원 삼척시 지역상생협의체와 지역민들이 31일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삼척화력발전 항만공사 재개 촉구 및 불순 외부세력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체는 "삼척화력발전소는 정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18차례의 상경집회를 통해 이뤄낸 삼척시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공사가 중단돼 지역경제 파탄으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평택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

2021년도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국소별 집행상황 점검·방안 논의

경기 평택시는 3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올해 상반기 목표액을 대상 예산액 1조 2435억 원 중 7088억 원으로 설정해 국소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집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주요 시설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약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선급금 집행,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와 토지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예정이다.

예창섭 부시장은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매월 집행사항 집중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달성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가평군 '자라섬 겨울스포츠축제' 부활한다

하천결빙시스템 활용…이상기온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사업 발전 기대

경기 가평군에서 올해 열릴 예정인 자라섬 겨울스포츠축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군이 하천결빙시스템을 활용해 자라섬 겨울스포츠축제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겨울철 온난화 등 이상기온을 극복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날 소회의실에서 하천결빙시스템 특허 업체인 ㈜신성케이엔씨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2년간 상호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력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김성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하천에서 열리는 겨울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겨울축제 부활 및 관광 비수기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상권을 살리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겨울놀이 종합선물셋트인 가평 자라섬 겨울축제는 지난 2009년 시작돼 매년 1월에 열린다.

그후 지난 2011년 구제역 여파로 한차례 열리지 못했지만 포근한 날씨 탓에 취소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이 축제는 지난 2009년 첫해 14만 명이 방문했다. 이듬해 얼음낚시를 대폭 확대해 국내 겨울축제를 대표하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 도전장을 냈는데 무려 79만여 명이 찾아 대박을 터뜨렸다.

또 지난 2011년에는 구제역 여파로 아쉽게 축제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면서 2012년에는 88만여 명, 2013년에는 120만 명이 방문하는 등 5년 만에 수도권 최대 겨울축제로 발돋움했다. 이후에도 매해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정선군, 지역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 총력…영농봉사은행 운영

농업기술센터에 일손돕기 창구 구축

강원 정선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이 중단되면서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군은 농촌 일손부족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손부족 해소와 영농초기 농업경영 활력을 위해 봄철 영농봉사은행을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봄철 영농봉사은행을 운영해 영농 작업에 힘을 보탠다.

군은 지난달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수 등 농업기반시설 피해 긴급 복구는 물론 영농초기 거름살포 및 파종, 농작물 정식 등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봄철 영농봉사은행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일손돕기 창구를 구축하고 지난달까지 읍·면별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신청 농가중 영세농, 거동불편 및 고령·독거자, 부녀자, 장애인 등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농가를 우선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한다.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600여 공직자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해 많은 봉사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명 1개조로 나눠 일손을 지원한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서천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한국해비타트와 체결

충남 서천군이 전날 장항읍 성주리 새뜰마을사업지 일원에서 (사)한국해비타트와 성주1리, 원수1리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서천군 장항읍 성원그리나래 새뜰마을사업이 선정됐다.

한국해비타트는 KCC, 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현물자재 지원을 통해 집수리 30가구, 슬레이트지붕 개량 11가구 총 41가구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군은 집수리 대상자 선정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주민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실질적으로 안락한 주거환경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는 "한국해비타트와의 민관 협력사업이 성주1리, 원수1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제주4·3 초토화 작전 학살 추정 유해 3구 나왔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서 발굴

제주4·3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굴됐다.

이는 4·3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재개 3년 만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31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명 '우구리 동산'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오후 3시 유해 발굴 현장에서 현장 보고회를 열어 경과보고와 추도제를 진행했다.

추도제는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이 발굴 현황을 설명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번에 발굴된 유해와 더불어 앞으로 발굴 유해에 대해 시료를 채취한 후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405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 중 133구의 신원을 확인했고 272구는 아직 신원확인을 못 했다.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군포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

6개 분야 27개 계획

경기 군포시가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2차 시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수립됐으며 건강과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분야 27개 세부시행계획으로 구성됐다.

시는 사람 중심의 푸른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지 녹화사업과 가로수 및 녹지 유지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철쭉동산 등의 꽃길 조성을 위해 연간 3만 5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정책의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과 미니태양광 지원, 에너지 절감마을 LED 전등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기후대응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굴해서 건강한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양양군,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 선정…국비 15억 확보

남대천 스마트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

강원 양양군이 국토교통부 '2021년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환경을 테마로 한 '양양남대천 스마트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이란 제목으로 군의 역점사업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최신 스마트 솔루션 기술을 접목해 생태 친화적인 하천으로의 탈바꿈을 내용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따라서 군은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남대천의 환경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IoT 관수시스템과 빗물저금통을 도입해 갈수기에 하천의 식생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수문 자동 제어로 수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워터관제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15억 원에 군비 15억 원을 더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한편 서성철 자치행정과장은 "양양남대천 환경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 스마트 워터관제를 도입, 남대천 일대 스마트 타운 조성으로 모범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보령시, 아동 위원 22명 위촉

충남 보령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에서 활동할 '보령시 아동 위원' 22명을 위촉했다.

아동 위원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 활동을 위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위촉됐으며 내년 12월까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 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은 아동 위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 후 아동 위원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아동 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담당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생활밀착형 코로나 시책 아이디어 공모

강원 속초시가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포스트 코로나 시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제안 제출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로 돼있고 6개월 이상 계속 시에 거주중인 시민에 한해 가능하며 1인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은 속초시 각 소관부서의 1차 심사를 거쳐 속초시제안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시상등급이 결정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 원, 장려상 2명에게 각 20만 원 등 총 5명 24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인제 자작나무 숲 나무심기 행사

북부지방산림청과 **강원 인제군**은 '자작나무 명품 숲 랜드 조성'의 첫 사업으로 31일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인제군산림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무심기행사는 자작나무 명품숲 랜드 조성 첫 사업이며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기념 및 원활한 사업 완공의 염원을 담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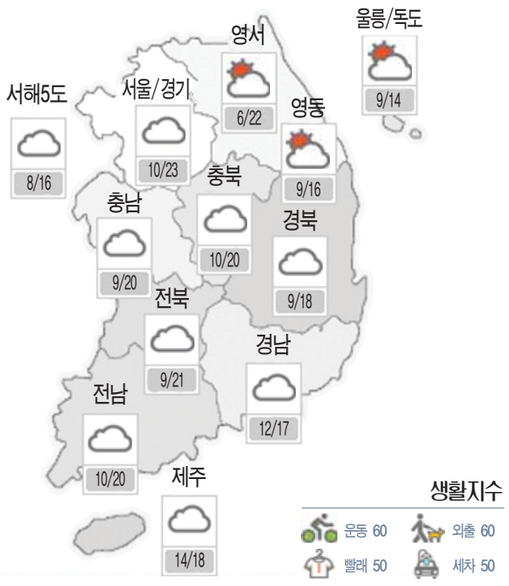
이날 심은 나무는 잘 자라서 자작나무 숲 방문객에게 일상에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오늘의 날씨

낮 기온 포근…전남·제주 빗방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는 오전, 전남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꽃게 조업 앞두고 서해 NLL 中어선 급증

中 해경법 시행 후 단속 강화
무등록어선 우리 해역 넘어와
방역지침 지키며 나포작전 수행

최근 꽃게 조업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이는 1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중국 내부의 무등록 어선 단속 강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경의 단속 방식 변화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금어기인 지난달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나타난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20척이었다.

하지만 봄어기 꽃게 조업이 임박한 이달 들어서는 불법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12척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매일 14척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새 서해 NLL 해상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8배나 급증했다.

꽃게어장이 있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만 이달 들어 매일 85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여파로 서해 NLL 해상의 불법 중국어선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무등록 중국어선들이 대거 우리 해역으로 넘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해경의 단속 방식 변화도 불법 중국어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경은 최근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나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최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꽃게 조업을 앞두고 연평도 인근 해상에 불법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나포한 중국 선원들을 조사했더니 '요즘 연평도에서 어획물이 잘 잡힌다'는 정보를 자국 어선끼리 연락망을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충남 보령시는 1일부터 주포면 관산리 소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조성한 자연학습식물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보령시 제공>

보령시 '자연학습식물원' 오늘부터 개방

충남 보령시는 1일부터 주포면 관산리 소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조성한 자연학습식물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물원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유리온실 790㎡ 규모에 인공폭포, 실개천 등 조경 시설을 갖추고 야열대 작목, 온대식물, 자생식물 등 300여 종이 식재돼 있다.

유리온실 내에는 꽃나무, 야열대식물, 온대식물, 식충식물, 공중식물, 야열대유실수 등 모두 10개 테마로 구성·배치해 관람객의 흥미를 높였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수원시에 도심형 생태수목원 생긴다

일월·영흥수목원 내년 준공 목표
市 대표 관광자원 자리매김 기대

경기 수원시는 '고품격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이 조성된다고 31일 밝혔다.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는 '일월 수목원(가칭)',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는 '영흥수목원(가칭)'을 조성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일월수목원은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다.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영흥수목원은 14만 5400㎡ 규모로 조성된다.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정원을 전시하고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는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다.

일월수목원에는 '생태정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예정된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흥수목원에는 3422㎡ 규모의 비지터(방문자) 센터와, 전시온실, 주제정원, 생태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제정원은 기존 논경작지의 일부를 남겨 경관을 전시하는 '논 전시원'과 다양한 수국을 볼 수 있는 '수국원', '그래스원', '암석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숲은 중부온대수림의 천이 과정을 전시하는 '생태숲'으로 조성한다. 숲속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월·영흥수목원은 '도심형 지역거점 수목원'으로 조성돼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이영철 안양시 만안구청장, 직접 소통 나섰다

14개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애로사항 청취
안양1번가 등 코로나19 피해 상권도 살펴

이영철 경기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만안구 14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 청장의 동 방문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다.

그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업무로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각 동의 현안과 애로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1번가 등의 지역 상권을 직접 살피기도 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만안구를 만들어 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경기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만안구 14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안양시 제공>

이 청장은 이번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에 이어 추후 관내 민원 현장을 직접 살피며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서산교육지원청, 2021학년도 전반기 교장 회의

원격수업 고도화 운영 등 협의

충남 서산교육지원청은 최근 2021학년도 전반기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산관내 교(원)장 54명이 모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열띤 협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켜야 할 학교방역, 원격수업 고도화 운영에 대해 협의했으며 환경교육, 식중독 예방교육, 학교회계 조기집행, 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학교장이 먼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 현장과 서로 조합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장우현 교육장은 "교장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행정제도를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학교가 변한다"며 "이 회의를 통해 학교교육공동체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혜로운 학교경영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여주시, 위기 처한 축산농가에 20억 융자 지원

사료 구매·기존 외상금 상환 가능

경기 여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내 축산농가들이 현금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 대상이며 자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사용 가능하며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원 가능하며 질병 발생농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구매자금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파주시·버스업체, 교통안전 전담공무원제 실시

협력체계 구축 신속 대응

경기 파주시와 관내 버스업체는 이달부터 교통안전 전담공무원제 실시와 협력체계(핫라인)를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대중교통과의 팀장과 실무자를 업체별 교통안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버스 운송업체 및 시 관계자와 SNS 핫라인을 구축해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파, 자연재해 예상 및 발생 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구현한다.

시는 또 관내 버스차량 안전장치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차량점검을 정기화·상시화 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운수종사자 '우측보기·실내보기·좌측보기'라는 '3-보고' 문화 확산에 버스업체가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캠페인 전개도 진행할 예정이며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말 우수 운수종사자 포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예방대책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버스업체와 마련한 만큼 앞으로 버스 운행과 관련한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의 중요성만큼이나 버스 업체 관계자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30일까지 집중단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 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경기남부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한 달간 형사·행정 책임 면제

경기남부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등 총포 91정, 탄약 등 화약류 1829점, 분사기와 도검 등 253점을 수거했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서천군, 행정착오 피해 민원보상제 실시

군 관할 내 민원인 1만원 지급

충남 서천군은 행정착오로 시간·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민원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서 단순·경미한 착오나 부주의·오류 등 행정착오가 확인되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계좌입금 및 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민원인은 1만 원, 군 관할 구역 외 주소를 둔 민원인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민원을 신청하거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한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세종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공모 선정

세종시가 국토부 주관의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돼 총 2억 6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획일적인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 계획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극복하고 공간환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이 지원된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지역 전체의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활성화 전략을 포함한 경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등 4억 원이 투입된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영천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내달 14일까지

경북 영천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는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설사병 등 8종에 대해 지역별 공수의가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으로 농가에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염소는 기생충, 콕시듐증 2종에 대한 예방약품을 나눠주고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농촌지역에서 사육 중인 개를 우선으로 광견병 예방접종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 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꿀벌응애,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3종에 대한 꿀벌 질병 구제약품 1만 98개를 꿀벌 월동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공급한 바 있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강원 고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모의훈련

강원 고성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생활체육관)의 신속·안전 운영을 위한 모의훈련을 한다.

2일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4월 셋째 주부터 실시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40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 백신 이동, 준비부터 접종 직후 이상반응에 따른 병원이송까지 관계기관 직원 67명이 참석, 합동으로 실시한다.

군 보건소와 군청, 22사단, 경찰서,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은 접종 전 대기→접수→예진표 작성→이동·대기→예진→이동·대기 →접종→이동→접종 후 관찰→귀가, 이상반응 발생시 병원이송 이후 훈련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에 행정, 경찰, 소방, 군부대 인력을 배치, 하루 최대 300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이상반응에 대비, 119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삼척시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개장

강원 삼척 맹방관광지 내 '덕봉산' 일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관광객 등을 위한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로 재탄생해 1일 개장한다.

시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도부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0월 군 당국과의 군 경계 철책 철거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철책철거와 탐방로 개설 사업추진이 본격화 돼 지난달 준공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해상의 기암괴석을 볼 수 있는 해안코스 626m와 대나무 숲이 우거진 정상부 전망대로 올라가는 내륙코스 317m로 총 943m의 탐방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3곳의 전망대와 야간 경관조명, 투광등, 해안조망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발 53.9m 정상부 전망대에서는 탁 트인 동해바다의 전경과 맹방해수욕장, 덕산해수욕장, 마읍천, 덕산 민박마을의 풍경, 근덕 시가지 풍경 등 사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김윤식 전 시흥시장 "투기 아냐…미분양 해결위해 산 것"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이 3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정보로 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땅투기 관련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이 지난 29일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김 전 시장을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정보로 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전 시장은 "배곧신도시 사업과 서울대 유치를 투기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흥시민에 모독"이라며 "당시 대대적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성공적 개발을 위해 미분양 한 채를 계약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분양권 시세 차익이 424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금, 수수료를 뺀 나머지 700만~800만여원에 불과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이 수사 의뢰를 한것에 대해 법적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자 김 전 시장은 "차후에 이러한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인천 중구 참외전로 일대에 설치돼 있는 도원육교.

"인천 중구 도원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라"

인천 중구 도원동 주민들이 도원육교를 철거한 뒤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 참외전로 일대에 설치돼 있는 도원육교는 지난 1996년에 준공된 길이 26m, 폭과 높이가 5m인 보도육교이다.

실제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됐으나 현재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커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천 중구 도원동 주민들 강력 요구
미관저해·무용지물 사고위험 늘 상존

주민 김모씨(57·도원동)는 "더욱이 오랫동안 도색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낡고 흉물스러워 보여 주변 상가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황골마을 상가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원육교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육교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종호 중구의회 도시정책위원장(국민의힘. 중구 가)은 "도원육교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도원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요청했다"며 "이에 지난해 1월과 7월 구에 탄원서 및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 유동 삼거리 경인전철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보도 육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사고예방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도원육교는 장천리 보도육교와 연결돼 참외전로 및 경인철도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로 단절된 중구와 동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의 이동편의 및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도로가 개설되거나, 도시환경 변화 등 시설물 필요성의 변화에 따라 육교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인근 학교와 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횡단보도 설치를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경기 광주역세권 개발부지에서 발견돼 활용여부에 논란을 빚었던 백토가 낡아 찢어진 포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조선백자 주요원료 백토 '흉물'로

다른 흙과 섞여 구분 힘들 상태
도예인들 "관리 소홀" 쓴목소리

경기 광주역세권 개발부지에서 발견돼 활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백토가 방치돼 있어 관리소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백토는 그동안 수입으로 의존해 온 조선백자의 주요 원료이다.

지난 2019년 채굴된 고령토로 도자기를 제작해 전시회를 개최한 15명의 도예인들과 행사에 참석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광주시 도자의 역사와 백토의 우수성과 희귀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해 4월 공사중에 나온 백토를 포대에 담아 경기도자재단 광터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예인들의 요청으로 공사중에 나온 백토를 자루에 담아 보관중에 있어 현장에서 확인 해 보니 다른 흙과 섞여 있어 구분하기 힘든 상태"라며 "도예인들은 백토를 추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관련 법규를 검토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A 도예인은 "원래 백토는 호미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조금씩 긁어모아 40~50%가량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흙과 섞어서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며 "다른지역의 흙은 살이라고 표현한다면 광주백토는 빛을 내는 아주 주요한 원료"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백토의 우수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도예인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조합의 상황에서는 보관된 백토를 관리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라며 "백토가 외부에서 비를 맞는 등 환경에 노출되면 점질이 떨어져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헉! 연리 최고 355%…불법 대부업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기획수사 21명 적발
저신용자에 100억대 불법 고리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한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출규모는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원을 불법 대출,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김 단장은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사건·사고

시설 퇴소 장애인 수차례 집단 폭행 일당 검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한 지적 장애인을 여러 차례 집단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 등지에서 2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가 지난해 12월 퇴소하기 전 머물던 경북 영덕군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 그를 인계했다. 조사 결과 B씨는 폭행을 당하기 전인 이달 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당시 A씨를 찾은 경찰이 해당 시설에 그를 인계했으나 영덕군 측에서 '시설 입소를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판정을 해야 한다'며 긴급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후 직접 112 신고를 하기 전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부하 여직원 신체접촉 창원시 직원 대기발령

경남 창원시 남자 직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창원시는 남성 상사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하려 했다는 여직원 민원이 들어와 해당 남성 직원을 대기발령 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 구청 소속 이 직원은 최근 부하 여직원 손을 잡거나 껴안으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영업제한 어긴 유흥주점 건물서 98명 또 적발

지난주 영업제한을 어기고 한밤중까지 영업하다 한꺼번에 135명이 단속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건물에서 또다시 변칙 영업으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강남구 역삼동 건물 5층의 한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98명을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이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는 지난 24일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머물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30일 밤 10시 58분께 "손님과 아가씨가 때리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우선 지하 주점의 문을 열었으나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밤 11시 12분께 "주점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와 같은 건물을 수색하던 중 5층에서 98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문제의 주점은 지난주 단속으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동일한 주점이 다시 단속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20일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 등 강화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연습실에서 영업한 행위가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으로 확인되면 경찰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동 정

4월 중 직원모임 참석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1일 오후 4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4월 중 직원모임에 참석.

코로나19 예방접종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은 1일 오전 9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은 1일 오후 4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관계자들을 격려.

자양면 삼귀리, 장학금 기탁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시장실에서 자양면 삼귀리 주민 일동으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 받는다.

2020 결산검사 위원 위촉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청양군청소년재단 출범식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1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양군청소년재단 출범식에 참석.

4월 출연기관 월간보고회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1일 오전 11시 금산군청에서 4월 금산군 출연기관 월간보고회에 참석.

월례아침모임 주재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는 1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월례아침모임을 주재.

확대간부회의 참석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논의.

춘천시, 공지천 하천수변정원 추가 조성

강원 춘천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있는 공지천(사진) 하천수변정원이 추가로 조성된다.

시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온의교~호반교 일대에 공지천 제2하천수변정원 및 수변산책로를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적 5000㎡ 규모의 공지천 제2하천수변정원에는 산책로와 잔디광장, 자갈길 등이 조성돼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롯데 캐슬 아파트 앞에 조성한 제1하천공원과 산책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올해 두 번째 하천공원 및 하천산책로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류 지역 태백교에서 거두교 사이 깔린 전석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전석을 제거한 구간은 산책로를 추가 확장할 방침이다.

온의교에서 호반교 사이에 시행할 하천정원에 사용하는 성토재는 전량 퇴적토를 준설해 사용한다. 이 작업은 여름철 홍수기를 대비한 재해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마득화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휴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하천환경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피에 게재됩니다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 적립기금 선뜻

제휴카드 포인트로 7059만원 마련
"어르신들 후생복지 재원으로 사용"

충남 서산시가 31일 시장실에서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와 2020년도 서산시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적립기금은 시와 농협 간 제휴로 발급하는 ▲보조금카드 ▲서산사랑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등을 사용 시 발생하는 0.1~1%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 마련됐다.

지난해 1년간 적립기금은 7059만 원으로 전액 시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관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어르신들의 후생복지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맹정호 시장은 "매년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금을 적립해줘 감사하다"며 "기금은 투명하게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부터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와 제휴를 맺어왔으며 현재까지 기금 누계액은 7억 8900만 원이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2020년도 서산시 –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 <서산시 제공>

<순천시의회 제공>

허유인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이 '반려나무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허유인 순천시의장, 반려나무 나눔 행사 동참
"생태·경제 도시로 발돋움 하길"

공원녹지과 직원들 격려

허유인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이 31일 동천변 저류지 주차장에서 열린 '반려나무 나눔 행사'에 동참, 이 행사를 기획한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허 의장은 "시민 누구나 반려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공원녹지과 부서의 아이디어를 칭찬한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성공을 거둬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 시가 생태 도시를 넘어 생태·경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최승준 정선군수 "현장서 헌신하는 노고에 감사"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최승준(사진) 강원 정선군수는 31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왕기 평창군수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최 군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를 응원했다.

최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는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류태호 태백시장을 각각 지목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신원주 안성시의장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주길"

공공기관 유치 시민참여 챌린지

신원주(사진) 경기 안성시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의 염원을 담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민참여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지명을 받은 신 의장은 '공공기관(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이전, 반드시 안성이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신 의장은 "안성시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안성유치를 위해 시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과 한병용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지목했다.

안성/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월암장학회 최광규 씨,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대천중 학생 15명에 수여

충남 보령교육지원청 대천중학교는 월암장학회 최광규 씨로부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보령교육지원청 제공>

충남 보령교육지원청 대천중학교는 31일 교장실에서 월암장학회 최광규 씨로부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월암장학금을 기탁한 최광규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대천중학교 6회 졸업생)과 이 장학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한 장광순 전 보령교육장(대천중학교 5회 졸업생)은 직접 전달식에 참석해 장학금 수여자인 3학년 진원규 외 14명에게 총 7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천중학교의 장학금은 한국전쟁 중 대천으로 피난 온 강신영 동문(대천중학교 5회 졸업생)이 후배들을 위해 매년 500만 원씩 15여 년간 지원해 온 개암 장학금과 최광규 동문이 250만 원씩 4년간 지급한 월암장학금 두 종류가 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최우규·음경택 안양시의원, 참석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최근 수암천 율목3교 인근에서 열린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는 율목3교~금용교 사이의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를 연장 설치해 하천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암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달 착공해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지난 2월 23일 최 의원이 참석한 착수보고회 역시 현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인천 중구, 하나개 해상관광탐방로 해변 정화활동

홍인성 구청장·최찬용 의장 등 참석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바닷가 정화활동을 펼쳤다.

인천 중구는 최근 중구 하나개 해상관광탐방로 해변에서 민간단체 2곳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바닷가 정화활동을 펼쳤다.

행사에는 홍인성 구청장과 최찬용 구의회 의장도 함께 참여, 무의둘레길 주변 바닷가 쓰레기를 수거했다.

홍 구청장은 "올해 중구는 인천 앞바다에서 모두 400t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양승호 동두천경찰서장 "텀블러 사용 약속한다"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양승호(사진) 경기 동두천경찰서장이 최근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정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양 서장은 '페트병 사용 안 하고 텀블러 사용하고'라고 쓴 피켓을 든 채 사진을 찍고 관련 내용을 동두천경찰서 SNS에 올렸다.

한편 양 서장은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 때 페트병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사용과 쓰레기를 줄여 생활 속에서 지구 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다. 동두천경찰은 페트병 사용 안 하고 텀블러 사용 하고를 약속한다"며 "시민들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이정용 동두천소방서장, 이철현 동두천농협 지부장, 양순종 재향군인회 상임이사를 추천했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일산동부署, 신형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배부

장비 사용법·유의사항 등 교육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신형 적외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4개교 선정 학교에 배부했다.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신형 적외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4개교 선정 학교에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탐지 전문성 강화와 불법촬영 범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내 자체점검단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점검 시 유의사항, 불법카메라 발견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조강원 서장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안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산동구가 되도록 관내 학교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산청군 제공>

산청군 '눈개승마' 수확 한창

31일 경남 산청군 오부면 민병기(70)·배상열(65)씨 농가에서 눈개승마 수확이 한창이다. 지리산 자락 해발 500m 부지에서 자라는 눈개승마는 사포닌, 칼슘, 인 등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다. 특히 쫄깃한 식감과 버섯맛, 고기맛, 인삼맛 세가지 맛이 난다해 삼나물이라고도 불린다. 이번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도 받은 눈개승마는 연하고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포토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 콘텐츠 지원사업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및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보령해양경찰서 방문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보령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포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파주연천축협 법원한우리회, 성금 200만원 기탁

경기 파주시 법원읍은 최근 파주연천축협 법원한우리회가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유광혁 경기도의원,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유광혁 경기도의원(더민주, 동두천1)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도 건강정책팀, 동두천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음주율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를 개최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경산시, 청풍당당포럼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북 경산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청풍당당포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청양군, 中신푸신구와 온택트 교류협력 의향서 교환

충남 청양군은 최근 중국 구이저우성 준이시 신푸신구와 온택트 우호 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횡성읍노인회,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농성장 방문

강원 횡성군 횡성읍노인회는 최근 원주 제8전투비행단정문 앞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격려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정대건 씨 부부, 삼척시에 마스크 1000장 기탁

정대건 씨 부부는 최근 강원 삼척시청을 방문해 첫 아이 출산 1000일을 기념해 마스크 1000장을 기탁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벚꽃은 피는데…’ 꽃피어 우울한 봄날

서길원 大記者의 세상읽기

꽃의 계절이다. ‘벚꽃 엔딩’을 흥얼거리며 꽃구경, 사람 구경하기 좋은 시간이다. 하지만 꽃들에게는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되고 ‘거리 두기’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꽃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이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루한 장맛비처럼 멈출 기미가 없지만 꽃들은 아랑곳없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있다. 산수유와 매화꽃이 피고 난 자리를 진달래와 생강꽃이 뒤를 잇고 목련과 개나리도 뒤질세라 얼굴을 내미는 계절이다. 꽃들이 피고 지고, 다투어 피어나는 계절이지만 역시나 봄은 벚꽃으로 완성된다.

벚꽃의 계절이다. 벚나무 가로수 길은 분 바른 듯 하얗게 화장하고, 앞산에도 벚꽃이 까까머리 아이의 머리에 핀 버짐처럼 번져가고 있다. 며칠 전 봄비에는 먼저 핀 벚꽃들이 나비처럼 날고,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은 3월 말, 개나리가 질 무렵부터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피어 북상하면서 중부지역은 4월 초중순에 절정에 달한다. 벚꽃은 일본의 국화인 탓에 한때 경원시 돼 1983년에는 창경궁에 심어져 있던 벚나무가 베어지고, 일부는 여의도의 윤중로에 옮겨 심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의 벚꽃은 일본의 왕벚나무와는 별개로 제주 한라산이 원산지이다.

다만 일제가 조선 강점기 시절에 창경궁에 일본 왕벚나무를 심었고 벚꽃 구경하는 문화를 들여왔다. 일본의 벚꽃은 미국으로 건너가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다. 워싱턴을 가로지르는 포토맥강 주변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4,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황홀경을 연출한다. 1912년 일본이 벚나무를 우정의 상징으로 미국에 선물했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 워싱턴에서는 100년이 넘도록 벚꽃 축제가 열리고,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든다. 우리나라에서 벚꽃 축제는 진해 군항제가 대표적이지만 경남 하동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벚꽃 십리 길이나 영암의 벚꽃 백리길, 보성 대원사 벚꽃 길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은 어디 어디라고 할 곳 없이 봄이 오는 길목마다 가득 피어 온 세상을 봄소식으로 가득 채운다.

특히 벚꽃은 팝콘이 터지듯 한순간 일제히 피어나는 것 못지않게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삶의 덧없음으로 상징되면서 상춘객들의 마음에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하얀 눈꽃 같은 꽃송이는 흐드러지는게,/불어오는 바람에도 가녀린 몸짓을 흔들고/ 생전에지지 않을 것처럼/ 저리도 웃고 있건만/ 벚꽃 같은 우리네 사랑은 지는가/... .../부드러운 너의 꽃잎은 그 작은 바람에도/견디지 못하고 흩날리고 마는구나/ 벚꽃아, 사랑아./사람들은 저마다 너를 보며 감탄 하네/ 나뭇가지에 붙어 있을 동안만이라도/ 아름다워라 마음껏 아름다워라/ 내일이면 너도 지고 사랑도 떠나간다/ ... ...” 김옥란 시인은 ‘벚꽃은 피는데 사랑은 지는가’라는 시에서 피었다 지는 벚꽃을 사랑에 비유하며 사랑이 있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라고 노래했다. 삶도 찰라와 같은 시간 속에 피었다가는 지는 벚꽃과 같다는 시인의 지적은 담담하면서도 처연하다.

반면 목필균 시인은 ‘“벚꽃나무’라는 시에서 잎새도 없이 꽃피운 것이 죄라고/봄비는 그리도 차게 내렸는데/ 바람에 흔들리고/허튼 기침소리로 자지러지더니/ 하얗게 꽃잎 다 떨구고 서서/흥건히 젖은 몸 아프다 할 새 없이/연둣빛 여린 잎새 무성히도 꺼내드네”라며 벚나무의 생명력과 역동적인 삶을 그렸다. 그뿐인가. 인디 밴드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은 벚꽃이 피는 계절에 전 국민이 한 번쯤 듣게 되는 계절송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로 시작해 ‘봄바람이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우 둘이 걸어요’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벚꽃 엔딩’은 김옥란 시인의 ‘나뭇가지에 붙어있을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아름다워라’는 요구에 답한 듯한 달콤하면서도 경쾌한 리듬으로 봄+노래를 대표하고 있다.

‘벚꽃 엔딩’은 크리스마스 캐럴에 비유돼 ‘봄 캐럴’로 불리는가 하면 작사·작곡자인 장범준은 매년 수억원대의 저작권료까지 받게 돼 ‘벚꽃 연금’이라는 애칭까지 얻고 있다. ‘벚꽃 엔딩’은 최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로 레토릭돼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됐다는 ‘웃픈’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꽃의 계절이다. ‘벚꽃 엔딩’을 흥얼거리며 꽃구경, 사람 구경하기 좋은 시간이다. 하지만 꽃들에게는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되고 ‘거리 두기’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꽃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이다. 어쩌겠는가. 견디면서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수밖에. 꽃이 피어 우울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다.

사 설

日, 성급한 긴급사태 해제 재확산 우려

일본은 오는 7~9월 도쿄올림픽과 패럴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서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긴급사태 해제로 인해 오히려 일본 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가 긴급사태 해제 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 발령된 이후 73일 동안 유지됐던 일본의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다. 일본 방역 당국이 수도권은 지난달 21일까지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했지만, 긴급사태 해제로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1시간 늘어났다. 대규모 행사의 인원 제한도 완화되어 수도권에선 지금까지 행사장 정원의 50% 혹은 5000명 중 적은 쪽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 정원의 50% 이내라면 1만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긴급사태 해제 후 재차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695명을 기록한 이후 16일부터 1133~1533명으로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기준으로 근 두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난달 29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 1일 1791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제4차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의 1주일간 일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달 2일 10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확연했던 제3파(3차 유행)가 진정되는 모습이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수도권 긴급사태가 풀린 지 6일 만인 이달 28일 기준으로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713명으로 급증했다. 광역지역 단위로는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0%가 넘는 34곳의 신규 확진자가 직전 주와 비교해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긴급사태가 적용된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난 3월 28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오사카는 감염 상황과 의료제공 실태를 보여주는 6개 지표 가운데 신규 감염자 수 등 5개 지표가 3단계(감염급증) 이상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4파에 들어섰다”며 긴급사태 선포의 전 단계로 도입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도호쿠와 시코쿠 지방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나 미야기, 오키나와현의 신규 감염자는 이미 긴급사태 선포 수준인 4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의 현 감염 상황에 대해 정부 분과회가 감염급증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을 상대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던 지난해 11월과 거의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것도 사상 최초의 일이지만,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올림픽도 역사상 처음이다. 해외 관중 포기와 함께 다음 달에는 일본 국내 관중도 50%로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져,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를 통해 ‘정권을 부양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해외 관중을 받지 않고 국내 관중을 50%로 제한했을 때 경제적 손실은 1조6258억엔(한화, 약 16조8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요미우리는 해외 일반관중 포기는 일본 경제에 2000억엔(한화. 약 2조760억원) 정도의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해외 관중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관중 포기 결정을 미루면 자칫 올림픽 개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의 감소로 올림픽 개최를 정권의 실적으로 삼으려던 스가 총리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로 코로나19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에 따라 스가 내각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세 먼지와 봄철 아토피피부염 관리

의학칼럼

김 은 형
분당제생병원 피부과장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 요인, 피부장벽기능, 면역체계의 이상, 환경적 요인 등의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다. 그중 환경적 요인으로 기후 변화, 대기 오염, 미세먼지, 중금속과 수질오염, 의복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아토피피부염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들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큼 다가온 봄이 반갑지만, 이 시기에 늘 따라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떠올리면 얼굴이 찌푸려지기 마련이다. 이런 오염물질은 여러 역학 연구에서 알레르기 질환 발생의 증가 및 증상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됐다. 프랑스의 4907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년간 노출된 PM10, NO2, CO의 평균 농도가 높을수록 습진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고, 469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출산 전후 PM2.5와 담배 연기에 노출 시 생후 첫 1년 동안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두 배 정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는 이산화질소(NO2), 이황산가스(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10)나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PM2.5) 등이 있고, 초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특히 피부에 침투하기 쉽다. 대기 오염 물질은 피부에 침투하여 각질층에 결합 후 전신 순환계로도 유입될 수 있다. 대기오염 물질은 피부 표면을 변화 시켜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항원의 항원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으며, 꽃가루 등의 흡입 알레르겐과 함께 작용해 알레르기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부 표면에 침투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목욕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집락을 감소시키며, 이물질을 제거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자극이 되는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정상 피부의 pH인 4-5.5와 유사한 pH 5.5 정도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장벽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세정제의 세정력과 거품 생성을 돕는 계면활성제 성분은 각질층의 단백질 및 지질 성분과 작용해 피부에 자극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장시간 물에 있을수록 보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수화(hydration)는 오히려 피부 장벽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어 매일매일 장시간 목욕을 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보습제의 성분은 물 외에도 피부 표면에 밀폐막을 형성해 수분을 보존하는 밀폐제, 피부를 윤활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제, 물을 끌어들여 함유하는 함습제 등이 포함된다. 보습제는 최소 하루 2회 이상 전신에 도포하며, 건조증이 심한 부위에는 수시로 도포해 준다. 씻지 않고 보습제를 덧바른다고 해서 피부 세균의 증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매번 보습제를 바를 때마다 씻을 필요는 없다. 미국피부과의사회(AAD) 보고에 따르면 소아의 경우 주당 100g 이상, 성인의 경우 주당 250g 이상을 도포해야 보습제를 통한 피부 장벽 기능의 개선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얼굴에 생긴 피부병이 마스크 때문에 생긴 트러블인지 아니면 기후 또는 환경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인지 감별하기가 어려워졌다. 환자의 증상과 발생 시기, 과거력,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정확한 검사를 통해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시기이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여러분의 투고, 사진, 만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60 / 홈페이지 제보 jeonmae.co.kr
외부 필진의 칼럼, 기고, 독자투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협하는 사이버 폭력, 그들로부터 청소년을 지키자

독자투고

함 희 정
강원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연일 메인 뉴스 한쪽 면을 자리 잡고있는 학교폭력 미투 기사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새학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한달이 되가고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의 물리적인 폭력이 많았던 반면,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올 초에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은 비중이 다소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은(8.9%→12.3%) 발생 비중이 더 커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SNS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학교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학교폭력이 사이버상으로 이전되며 주변 학교, 더 넓게는 타지역에까지 그 피해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가상을 뜻하는 사이버(Cyber),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bullying)이 합쳐진 단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저격글을 올리거나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등 더 대담하고 흉포한 가해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사이버 상에서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신중하게 생각한 뒤 작성하고, 이름·연락처·신체 사진 등 개인정보는 가급적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국번없이 ‘117’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상담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더 밝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국의 생생한 NEWS를 한눈에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대표전화	1588 - 5762		
정치부	031-755-5600	지방부	031-755-5622
경제부	02-749-0923	광고문의	070-4325-3858
사회부	031-755-3484	FAX	031-758-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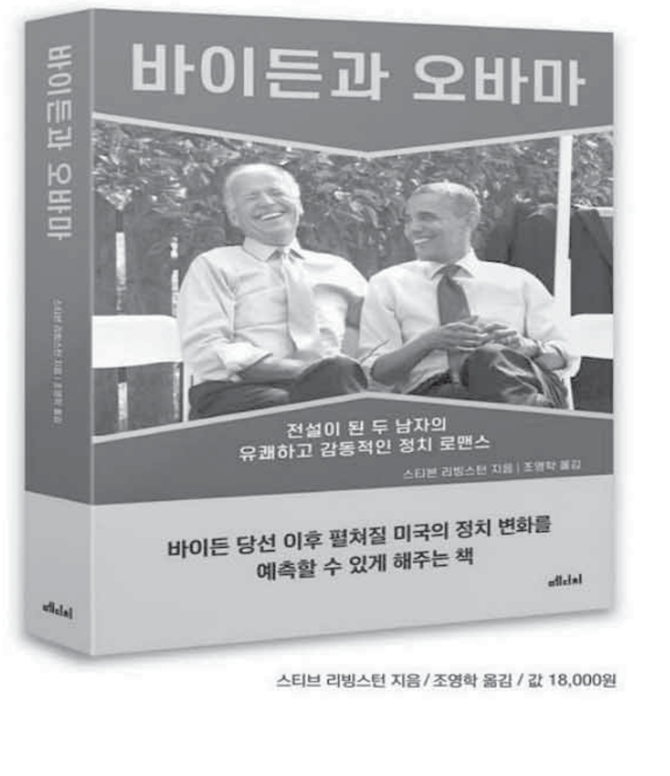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염창동, 덕신빌딩)

구독·배달안내

서울본사	02-749-0922	강원춘천본부	033-251-4866
인천본사	032-751-1478	충남본부	041-668-3722
경기북부본사	031-967-1616	충북본부	043-255-8877
대구본사	053-471-1111	호남본부	061-742-8181
경남본부	055-761-7882	서부본부	061-284-9781
세종본부	044-865-8000	제주본부	064-723-1950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구독료 : 월 1만6,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제휴사 : 중국 요령일보사 조선문보

2020년 미 대선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 바이든의 극적인 인생과 정치 역정



스티브 리빙스턴 지음 / 조영학 옮김 / 값 18,000원

뛰어난 정치적 파트너십으로 미국을 훌륭히
이끌어간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그들이 함께한 8년은 미국 정계의 전설이자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다.

조 바이든이 출사표를 던진
2020 미 대선의 향방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최상의 소개서”
—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한미동맹의 미래를 두고 말이 많은 요즘
한국 독자에게 시의적절한 책이다.”
— 최상훈(<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

<댈러스 모닝뉴스> 선정
2019 베스트북

<워싱턴 포스트> 선정
2019년 주목할 만한 논픽션

교보문고에서
“바이든과 오바마”를
검색하세요.

메디치미디어

더 많은 이들의 Life is Good!을 위하여
도전이 모여 만드는
혁신의 파장
전기차배터리로
청정한 미래를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
Camille Girard
OLED로 초고화질에
눈건강까지 생각하는
LG디스플레이 성세종
고객맞춤형 디자인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LG전자 CX Lab 오민규
LG
* 본 광고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